

2022 유라시아 시민대장정 활동보고서

- 2030 월드엑스포 부산에 유치해! -



2 0 2 2
유 라 시 아
시 민 대 장 정
활 동 보 고 서

- 2030 월드엑스포 부산에 유치해! -



조선통신사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INTERNATIONAL MEMORY OF THE WORLD JOSEON TONGSINSA
KOREA IS READY!
World Expo 2030

조선통신사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INTERNATIONAL MEMORY OF THE WORLD JOSEON TONGSINSA
KOREA IS READY!
World Expo 2030

유라시아
시만대
Korea University



2030 월드엑스포 부산에 유치해!

프랑스 파리

유라시아 시민대장정

2022. 9. 21수 - 9. 26 월

조선통신사 유류스크 세계기록유산

INTERNATIONAL HERITAGE OF THE WORLD

World Expo 2030

KOREA IS READY!

01
인사말

-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006
- 안성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008
- 정종필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010

02
사업개요 및 결과

- 사업개요 및 성과 013

03
활동기록

- 사전답사 및 오리엔테이션 활동기록 020
- 도시별 행사 활동기록 022

04
활동후기

- 박희용 부산광역시의회의원 후기 033
- 대학생 엑스포 홍보단 후기 034
- 운영진 후기 052
- 부산외국어대학교 사업개요 및 주요성과 ... 074
- 부산문화재단 사업개요 및 주요성과 076
- 부산경제진흥원 사업개요 및 주요성과 078

05
언론보도 자료

- 부산일보 기사 081
- 언론보도 기사 085

06
부산국제교류재단 소개

- 기구·인력현황·주요업무 내용 089

07
유라시아협력센터 소개

- 센터연혁 091
- 2022년 사업추진 실적 092
- 2023년 사업추진 계획 095

01

인사말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부산에서 유라시아로, 2030 월드엑스포 부산에 유치해!’를 슬로건으로 엑스포 부산유치 홍보의 성공적인 임무를 무사히 마치고 돌아온 유라시아 시민대장정 대원 여러분에게 축하와 감사의 인사 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2년간 중단되었던 유라시아 시민대장정의 재개라는 의미가 있는 이번 유라시아 시민대장정에서는 안성민 부산시의회 의장님을 필두로 한 대장정 대원들이 대한민국 최초의 세계박람회가 될 ‘2030 월드 엑스포’ 부산 유치 홍보를 위해 카자흐스탄 알마티를 시작으로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를 거쳐 프랑스 파리과 벨기에 브뤼셀에서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였습니다.

2016년 처음으로 시작되어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하였으며, 유라시아 관문 도시 부산을 알리는 부산의 대표 외교행사인 유라시아 시민대장정은 민·관·학·언론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해양수도’ 부산을 전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해 왔으며, 올해는 중앙아시아 판로개척과 2030월드엑스포 부산 유치 홍보에 큰 역할을 해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대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2030 월드엑스포 부산 유치를 위해 정부·민간과의 협업체계 및 민관 네트워크를 활용, 범국민 범업 조성과 함께 BIE 170개 회원국에 대한 교섭 활동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한국-중앙아 수교 30주년을 맞이하는 해인 만큼, 우리 시에서는 중앙아 국가 도시와의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확대를 위해 ‘2022 유라시아 도시포럼’과 ‘카자흐스탄 영화제’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했고, 대장정 기간 중에 카자흐스탄 알마티시와 중앙아 국가와는 처음으로 ‘우호협력 도시 MOU’를 체결하였으며, 10월에는 ‘제15차 한-중앙아 협력포럼’을 성황리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국가균형발전 선도 및 글로벌 도시 도약을 위해 가덕도 신공항 건설 및 북항 재개발 등 2030 부산 월드 엑스포 유치 기반 조성과 교섭활동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유라시아 관문 도시 부산이 세계를 향해 더욱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라시아 시민대장정을 건강하게 잘 마무리하고 돌아온 대원 모두에게 뜨거운 격려와 축하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 성 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2022 유라시아 시민대장정의 성공을 기념하고 이를 널리 알리기 위한 활동보고서를 발간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13박 15일 간의 여정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온 대원 여러분께 진심 어린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대장정을 이끈 단장으로서 무척이나 자랑스럽습니다.

유라시아 대륙의 관문인 우리 부산은 지정학적으로 원대한 꿈을 품지 않을 수 없는 운명을 타고난 도시입니다. 해상 물류의 중심으로 바닷길은 일찌감치 평정했고 가덕신공항과 함께 하늘길도 이제 곧 더 멀리 뻗어갈 것입니다. 부산은 여기에 멈추지 않고 철도와 육로로 한반도를 관통해 저 멀리 유럽까지 달려가겠다는 꿈을 펼치고 있고 그 꿈을 이루겠다는 염원이 유라시아 시민대장정의 정신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2022 유라시아 시민대장정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마음에 새기고 출발했습니다.

첫 번째 책무는 코로나19로 3년 만에 대장정을 다시 시작하면서 유라시아 대륙의 관문인 부산의 원대한 꿈을 다시금 확인하고 유라시아 대륙 각 나라에 부산의 이름을 각인시키는 친선교류를 재개한다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대원들의 열정 덕분에 방문지마다 뜨거운 연대감을 확인하면서 3년이라는 공백을 무색하게 만들었다고 자신합니다.

두 번째는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지를 이끌어내는 중차대한 임무였습니다. 사실 대장정이 출발한 지난 9월 당시만 해도 부산이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 비해 크게 뒤처지고 있다는 여론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특히 우리 원정대가 방문했던 중앙아시아와 유럽은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우크라이나 오렛사, 이탈리아 로마 등 부산과 경쟁하고 있는 도시들에 우호적인 지역이어서 그야말로 비장한 각오로 임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원들은 소수정예지만 뛰어난 역량과 열정으로 알마티, 비슈케크, 타슈켄트, 브뤼셀 그리고 마지막 종착지인 파리까지 모든 도시에서 ‘2030부산세계박람회’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을 이끌어냈고 우리 스스로도 큰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의 대장정을 기점으로 2030세계박람회 유치전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부산이 초반 열세를 극복하고 역전시킬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가 다수 감지되고 있습니다. 단장으로서 2022 유라시아 시민대장정이 기대 이상의 성과를 충분히 거뒀다고 자신하며 함께해 주신 대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부산에서 파리까지 11,080km 대장정에 함께해 주신 대원 여러분의 생생한 경험담을 모은 활동보고서는 앞으로 계속될 유라시아 시민대장정이 더 힘차게, 더 당당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바른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일원으로서 한 페이지를 장식할 수 있게 되어 대단히 영광입니다.

2030년 세계박람회 개최도시를 최종 결정하는 170개 회원국 투표가 2023년 11월로 임박했습니다. 2030년 세계박람회는 부산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의 부산'으로 우뚝 설 수 있는 다시없는 기회입니다. 가슴 뛰는 부산 대도약의 역사를 개막하기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힘을 모아 주십시오. 염원이 이루어지면 함께 만나 열싸내고 마음껏 자축합니다. 승리의 그날을 기대하며 유라시아 시민대장정 대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정 종 필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우선 올해 유라시아 시민대장정에 참가한 대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 전합니다. 유라시아 시민대장정은 2016년을 시작으로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하였습니다. 그 간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2년간 중단되어 올해 대장정을 재개하기까지 세계적 이슈들과 더불어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부산에서는 한-중양아시아 수교 30주년을 기념하는 다채로운 행사와 더불어 카자흐스탄 총영사관이 개관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유라시아협력센터에서는 카자흐스탄 총영사관과 함께 국내 최초로 '카자흐스탄 영화제'를 개최하였으며, 올해 7회째를 맞는 '유라시아 도시포럼'에서는 부산-중양아시아 국가와의 도시 네트워크 구축과 실질적 교류 방향을 주제로 개최하는 등, 중양아시아 국가와의 새로운 교류 네트워크 추진에 박차를 가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유라시아 시민대장정은 현재 부산의 최대 과제인 '2030 월드 엑스포 부산 유치'를 위해, '부산에서 유라시아로, 2030 월드 엑스포 부산에 유치해!' 라는 슬로건으로 지금까지 대장정 방문 경로와는 조금은 다른 경로를 택하였습니다. 부산역에서 개최한 대장정 출정식을 시작으로 카자흐스탄 알마티,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를 지나 벨기에 브뤼셀에서 프랑스 파리까지, 13박 15일의 여정 동안 대원들은 대학생 엑스포 홍보단을 주축으로 5개 도시를 방문해 2030 부산 엑스포 홍보 및 대학생 교류 등 14개의 행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대장정 동안 함께한 부산시에서는 중앙아시아 국가와는 최초로 부산-알마티 우호 협력 도시를 체결하였으며, 부산경제진흥원에서는 부산시장 개척단 파견을 통해 392만 달러 상당의 계약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부산외국어대학교에서는 중앙아시아 국가 2개 도시 3개 대학과의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부산시의회에서는 부산-비슈케크 시의회 협력 활성화 및 2030 부산 엑스포 유치지지를 당부하였으며, 부산문화재단은 파리에서 2030 부산 엑스포 유치홍보 야외퍼포먼스와 조선통신사 관련 전시를 우리와 함께 협업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유라시아협력센터는 유관기관과의 협력과 민간차원의 시민대장정 추진, 그리고 2030 부산 월드 엑스포 성공유치를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부산-유라시아 협력 네트워크 발족과 부산-중앙아 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해서도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 유라시아 시민대장정의 추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심 박형준 부산시장님을 비롯하여 15일간 대장정 대원을 무사히 인솔해 주신 부산시의회 안성민 의장님과 박희용 의원님, 그리고 주대한민국 카자흐스탄 대사님과 해외 각 도시의 공관장 및 관계자분께도 깊은 감사 인사드립니다. 그리고 대장정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온 단원 모두에게도 힘찬 박수와 격려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02

사업개요 및 결과

사업개요	기 간	2022. 9. 13(화)~9. 27(화) 13박 15일
	규 모	55명(대학생 9명·시의원, 경제인, 운영진 및 공연단 등 46명)
	주 최/주 관	부산광역시/부산국제교류재단, (사)2030부산월드엑스포범시민유치위원회
	협 력 기 관	부산경제진흥원, 부산문화재단
	주 요 내 용	도시별 청년교류 및 네트워크 발굴 및 구축,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홍보 및 응원 요청 등
	이 동 경 로	총 11,080Km

부산(열차) → 광명(버스) → 인천(항공) → 알마티(버스) → 비슈케크(항공) → 타슈켄트(항공) → 이스탄불(경유) → 파리(철도) → 브뤼셀(철도) → 파리(항공) → 인천(항공) → 부산



도시별 행사개요



참가자
명단

공동주최·주관	부산광역시 / 부산국제교류재단, (사)2030부산월드엑스포범시민유치위원회
사업운영총괄참가자	1 안성민 단장 부산시의회 의장
	2 박희용 부단장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 의원
	3 이성권 부산광역시 경제부시장
사업관리총괄	1 황영하 부산광역시 신외교통상과장
	2 박재영 부산광역시 신외교팀장
	3 이해진 부산광역시 신외교팀 주무관
	4 김자영 부산광역시 신외교팀주무관
사업운영총괄	1 정종필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2 이치우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차장
	3 전미경 부산국제교류재단 유라시아협력센터 팀장
	4 성혜진 부산국제교류재단 유라시아협력센터 선임
	5 손희승 부산국제교류재단 유라시아협력센터 선임
2030 부산월드엑스포 유치 홍보	1 조숙은 사)2030부산월드엑스포범시민유치위원회 홍보팀장
	2 김수진 한국해양대학교 3학년
	3 박민서 동아대학교 4학년
	4 송지은 경성대학교 3학년
	5 이성원 한국해양대학교 4학년
	6 이현주 동아대학교 3학년
	7 유채연 동서대학교 4학년
	8 조윤경 동서대학교 4학년
	9 화예림 부산대학교 4학년
	10 황세영 동의대학교 4학년
부산시의회 협조	1 문성인 부산시의회 주무관
보도 및 영상촬영	1 손혜림 부산일보 사회부 기자
	2 정수원 부산일보 디지털미디어부 선임PD

협력 기관

협력 기관	1	부산광역시2030엑스포추진본부
	2	부산시의회
	3	주대한민국카자흐스탄대사관
	4	주대한우즈베키스탄대사관
	5	주대한민국키르기스스탄대사관
	6	주부산카자흐스탄총영사관
	7	부산문화재단
	8	부산경제진흥원
	9	부산외국어대학교
	10	코레일부산경남본부
	11	부산관광공사
	12	부산일보

현지 협력 기관

카자흐스탄	
1	주알마티한국총영사관
2	알마티시청
3	알마티시의회
4	카자흐 국제관계세계국립언어대학교
5	카자흐필름
6	카자흐국립발레오페라극장
7	알마티고려문화원
8	JKS 엔터테인먼트극장
키르기스스탄	
1	주키르기스스탄대한민국대사관
2	아라바예프 키르기스 국립대학교
3	카라사예프 비슈케크 국립대학교
4	비슈케크시의회
우즈베키스탄	
1	주우즈베키스탄대한민국대사관
2	타슈켄트국립 동방대학교
프랑스	
1	주프랑스대한민국대사관
2	주프랑스한국문화원
3	주프랑스한국교육원
4	파리시테대학 한국학과
5	KICK CAFE
벨기에	
1	주벨기에유럽연합대한민국대사관

주요일정

	일시	장소	주요 내용
카자흐스탄 알마티			
1일차 9.13(화)	10:00~11:00	부산역 유라시아 플랫폼	• 2022 유라시아 시민 대장정 출정식
	11:00~13:25	부산-광명	• 부산역-광명역(KTX) 이동
	18:05~21:40	인천공항	• 인천-알마티 도착, 알마티 주재 환영식
	22:00	알마티공항	• 대장정 단원 환영식(알마티 시청)
2일차 9.14(수)	10:00~12:00	JKS 엔터테인먼트	• 틱톡 하우스, 틱톡 스튜디오 방문 견학
	13:30~15:30	카자흐필름	• 카자흐 필름 방문 견학
	16:00~17:00	알마티 시청	• 부산-알마티 우호 협력 도시 체결식
	19:00~21:30	카자흐스탄 호텔	• 부산-알마티 친선의 밤 만찬 개최
3일차 9.15(목)	10:00~15:00	알마티 시내	• 고려인의 도시 알마티 그 흔적을 찾아서 ① 알마티 내 고려인 관련 유적방문
	15:30~17:00	고려극장	• 고려인의 도시 알마티 ② 고려인 초청 간담회 (문공자, 김켄나디)
4일차 9.16(금)	10:00~13:00	카자흐국제관계 세계언어 대학교	[2030 부산 엑스포 유치 기원] • 부산-알마티 대학생 교류회
	14:00~17:00	문화탐방	• 침볼락 시찰
	19:00~21:00	국립오페라 발레극장	• OPERALIA 국제 클래식 페스티벌 오페라 관람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			
5일차 9.17(토)	08:30~12:30	알마티-비슈케크	• 알마티-비슈케크 국경이동(버스)
	15:00~18:00	문화탐방	• 마나스 동상, 대통령궁 등
6일차 9.18(일)	10:00~15:00	비슈케크 국립대	• 대학생 교류 행사 준비 및 리허설
	16:00~18:00	문화탐방	• 알라아르차 국립공원
7일차 9.19(월)	09:30~12:00	키르기스 국립대	[2030 부산 엑스포 유치 기원] • 부산-비슈케크 대학생 교류 I
	13:30~16:00	비슈케크 국립대	[2030 부산 엑스포 유치 기원] • 부산-비슈케크 대학생 교류 II
	19:30~19:50	비슈케크 공항	• 비슈케크-타슈켄트(항공)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8일차 9.20(화)	09:30~12:30	타슈켄트 동방대학	[2030 부산 엑스포 유치 기원] • 부산-타슈켄트 대학생 교류
	14:30~18:00	문화탐방	• 아무르타무르 광장, 무스타칼리크 등
9일차 9.21(수)	09:05~12:15	타슈켄트-이스탄불	• 타슈켄트-파리 이동(이스탄불 경유)
	14:15~17:00	이스탄불-파리	• 이스탄불-파리 이동
프랑스 파리			
10일차 9.22(목)	10:30~12:30	파리 시테대학	[2030 부산 엑스포 유치 기원] • 파리 시테대학 대학생 교류
	14:00~17:00	라데팡스 광장	[2030 엑스포 유치 홍보 퍼포먼스] • 유튜브 고퇴경과 함께하는 랜덤플레이 참가

	일시	장소	주요 내용
11일차 9.23(금)	09:30~11:30	오르세 미술관	• 엑스포 스테디 투어
	14:00~17:00	키크카페	• 부산-파리 시민 교류 행사
	18:30~21:30	프랑스한국 문화원	[부산데이 in Paris 개최] • 개막식, 오이소 포차(만찬), 문화체험, 퓨전 국악 공연, 포토존 운영 등
12일차 9.24(토)	09:00~12:00	브띠팔레 몽파르나스 타워	• 엑스포 스테디 투어
	14:00~17:00	상드마르스광장 루브르박물관	[2030 엑스포 유치 홍보 퍼포먼스] • 플래쉬몹
벨기에 브뤼셀			
13일차 9.25(일)	07:55~09:36	열차이동	• 파리북역-브뤼셀 미디역 이동(열차)
	10:00~15:00	브뤼셀	• 엑스포 스테디 투어(아토미움, 브뤼셀 시내)
	15:16~16:38	열차이동	• 브뤼셀 미디역-파리북역 이동(열차)
프랑스 파리			
14일차 9.26(월)	10:00~16:00	엘발리드, 개선문	• 엑스포 스테디 투어
	16:00~17:00	이동	• 파리 시내-공항 이동
	21:00~16:30	파리공항	• 파리-인천 이동
대한민국 인천-부산			
15일차 9.27(화)	17:00~18:00	인천공항	• 인천-김포공항 이동
	19:25~20:35	김포공항	• 김포공항-부산 이동

주요실적

- 부산-알마티 우호협력도시 체결(중앙아 국가 최초)
- 부산시장개척단 62건 상담 개최, 392만 달러 상당 계약추진 (의료제품, 소비재, 전기차 등 11개 부산지역 기업 참가)
- 5개 도시 방문 14개 행사 개최(2030 부산 엑스포 홍보 및 대학생 교류 등)
- '부산데이 in 파리' CIS 대사(3개국) 및 한류 인플루언서 등 130명 참가
- 4개 도시 5개 대학 방문 및 대학생 교류
- 2개 도시 3개 대학 부산외대 간 MOU 체결
- 재외 한국공관(7개소), 주한 공관(4개소), 현지 기관(13개소), 국내기관(8개소)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주요성과

- 대학생 엑스포 홍보단을 통한 2030 부산 월드 엑스포 유치홍보 제고 및 청년교류를 통한 청년 글로벌 마인드 함양
- 중앙아시아 경로 개발-파견으로 부산시-중앙아 거점도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향후 민간교류 활성화 기대(문화·예술 교류 등)
- 중앙아-부산 소재 대학 간 MOU 체결을 통한 우수인재교류 발판 마련
- 부산시 당면현안인 '2030 부산 월드 엑스포' 유치를 위한 행사를 부산시·부산의 유관기관 간 협업·추진을 통해 부산시정·시책에 실질적 기여
- '유라시아 관문 도시' 부산 브랜드 제고를 위한 부산발 유라시아 루트 개척



03

활동기록

사전답사 및 오리엔테이션 활동기록

I 7.8(금) ~ 21(목) 사전답사



사전답사 및 오리엔테이션 활동기록

I 7.8(금) ~ 21(목) 사전답사



I 9.7(수) 오리엔테이션



도시별 행사 활동기록

I 9.13(화) 대한민국 1일차 2022 유라시아 시민대장정 출정식



출정식 개최



I 9.13(화) 카자흐스탄 1일차 알마티시



[알마티 시청] 환영식



I 9.14(수) 카자흐스탄 2일차 알마티시



JKS 엔터테인먼트 견학



카자흐 필름 견학



부산-알마티 우호 협력 도시 체결식



부산-알마티 우호협력도시 체결기념 친선의 밤



도시별 행사 활동기록

I 9.15(목) 카자흐스탄 3일차 알마티시



고려인의 도시 알마티: 그 흔적을 찾아서



고려인의 도시 알마티: 고려인 초청 간담회



I 9.16(금) 카자흐스탄 4일차 알마티시



[국제관계세계언어대학교] 부산-알마티 대학생 교류



[OPERALIA 국제 클래식 페스티벌] 오페라 관람



I 9.17(토) 키르기스스탄 5일차 비슈케크시



비슈케크 문화탐방



도시별 행사 활동기록

I 9.19(월) 키르기스스탄 7일차 비슈케크시



[키르기스 국립대] 부산-비슈케크 대학생 교류 I



비슈케크 시의회 방문



[비슈케크 국립대] 부산-비슈케크 대학생 교류 II



I 9.20(화) 우즈베키스탄 8일차 타슈켄트시



[국립동방대] 부산-타슈켄트 대학생 환경교류회



I 9.22(목) 프랑스 10일차 파리시



[파리시테대] 부산-파리 대학생 교류



엑스포 홍보 야외 퍼포먼스 I : 랜덤 플레이 댄스



도시별 행사 활동기록

9.23(금) 프랑스 11일차 파리시



[KICK CAFE] 부산-파리 시민교류 행사



9.23(금) 프랑스 11일차 파리시



부산데이 in Paris 행사



1 9.23(금) 프랑스 11일차 파리지



부산데이 in Paris 행사



도시별 행사 활동기록

I 9.24(토) 프랑스 12일차 파리지



파리 엑스포 스테디 투어



엑스포 홍보 야외퍼포먼스 II



도시별 행사 활동기록

I 9.25(일) 벨기에 13일차 브뤼셀시



브뤼셀 엑스포 스테디 투어



I 9.26(월) 프랑스 14일차 파리시-인천공항



[파리] 엑스포 스테디 투어



04

활동후기



박희용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유라시아 관문도시로서의 부산을 알리고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홍보를 위해 이번 2022 유라시아 부산시민대장정 대원은 2022년 9월 13일 부산역을 출발하여 알마티, 비슈케크, 타슈켄트, 브뤼셀, 그리고 마지막 종착지인 파리까지 총 5개국 5개 도시를 방문하였습니다.

13박 15일의 긴 여정동안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대원 모두가 부산을 알리는 민간외교관의 마음으로 힘들 때 서로를 배려하고 격려하며 단 한명의 낙오자도 없이 성공적으로 대장정을 마칠 수 있어서 매우 기쁩니다. 대원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각 도시의 정부 및 공관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15일간, 대장정의 부단장으로서 뜻깊은 여정을 함께하게 되어 영광이었습니다. 또한 올해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유치 지원을 이끌어 내기 위한 중차대한 임무를 맡았습니다. 우리 대원들은 소수정예였지만 뛰어난 역량으로 모든 도시에서 열정적인 홍보활동을 펼친 결과, '2030 부산세계박람회'유치에 대한 긍정적 분위기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특히 이번 대장정 기간 중 실시된 카자흐스탄 알마티시와의 우호 협력 도시체결로 앞으로 부산과 중앙아시아 국가와의 인적·물적 교류가 지금보다 더욱 활발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감과 파리에서 개최된 '부산데이 in 파리' 행사에서는 파리 시민들을 통해 소프트 파워를 통한 한국의 위상과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의 청신호를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 부산에서 파리까지, 하늘길과 대륙의 길의 거리를 합치면 총 11,080Km를 이동하였습니다. 부산과 서울 간의 거리가 약 400Km이니 엄청난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멀게 느껴지지 않는 것은 아마도 과거 동·서양의 교류의 길이었던 실크로드를 따라 이동하였던 우리의 선조들의 DNA를 물려받았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년 11월, 이맘때쯤이면 부산의 북항 부지에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라는 승리의 깃발이 휘날리기를 기대하며 다시 한번 유라시아 시민대장정에 참가한 모든 대원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01 키르기스국립대학교 대학생 교류회에서 생긴 일



김수진
한국해양대학교

키르기스국립대학을 방문하기 전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다. 키르기스국경에서 다른 국가와 무력 충돌이 생겨 우리가 방문한 주간이 국가 애도 기간으로 지정되었다는 소식이었다. 우리의 발표는 엑스포 소개뿐만 아니라 청년 교류라는 목적을 함께 지니고 있었기에, 교류를 위한 춤과 노래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교류 날이 국가 애도 기간으로 지정됨에 따라 우리가 준비한 행사의 절반 이상이 수정되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그날 밤, 긴장 탓인지 쉽사리 잠들지 못했다. 이미 카자흐스탄에서 한차례 대학생 교류 행사를 했지만 긴장되는 건 마찬가지였다. “우리의 부족함이 보이지 않을까?”, “우리가 제대로 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며 잠자리에 들었다.

깊은 잠이 들지 못하고 아침이 밝아왔다. 아침 일찍 일어나 친구들을 만날 준비에 나섰다. 행사장 문이 열리고 우리는 빠르게 이동했다. 행사장에 도착하자 문제가 발생했다. 키르기스스탄에서 정한 국가 애도 기간으로 이에 맞추어 기존 PPT에 심겨 있던 배경음악까지도 모두 제거하였는데, 옮겨진 파일에는 반영되지 않았던 것이다. PPT 팀장이었던 윤경이는 침착하고 빠르게 움직였다. 아마 윤경이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행사를 제대로 시작하지도 못했을 것이다.

행사가 시작되었다. 이제부터 발생하는 문제는 운에 맡길 수밖에 없었다. PPT가 넘어가지 않는 건 사소한 문제에 불과했다. 영상이 잘못 송출되거나, 순서가 갑작스레 바뀌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했다. 그럴 때마다 나의 발은 홀린 듯이 통솔 부스를 향하고 있었다. 난 나 스스로 주문을 걸었다. “아무 문제 없어, 괜찮아”



대학생 엑스포 홍보단 후기



어느 정도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는 행사장을 돌아다니며 사진을 찍었다. 그러던 중, 키르기스 대학의 한 여성분이 나에게 귓속말을 걸어왔다. “나 안 예쁜데 왜 찍어요, 다른 사람들이 더 이쁘요.” 한편으로 당황했지만 내색하지 않은 채 그녀에게 말했다. “여기에서 제일 예뻐서 찍는 거예요!” 그녀는 부끄러운 듯 두 볼을 붉히며 “고마워요”라고 말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었다.

대장정 발표에 이어서 키르기스대학 학생들의 발표가 시작되었다. 두 학생이 나와 유창한 한국어로 발표를 이어나갔다. 외국인이 한국어를 하는 경우 한국인 특유의 억양까지 따라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마련인데, 두 학생의 발표는 한국인인가 착각이 들 정도였다. 그들은 발표에서 한국어를 배우며 어려웠던 점을 토로했다. 한글에는 “아” 다르고 ‘어’ 다르다’라는 말이 있듯, 비슷한 듯 다른 단어들을 볼 때면 당황스러웠다고 말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비해 너무 유창한 그녀들의 실력을 보며 그들의 피나는 노력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한국에서부터 가져온 선물을 꺼내 쭈뼛쭈뼛 그들에게 다가갔다. “방탄소년단 좋아해요?” 말 걸며, 방탄소년단 마스크와 간식을 건넸다. 방탄소년단을 좋아하나 물었을 때, 좋아하지 않는다고 답하는 친구는 없었다. 만국 공통 타올 100%의 질문이랄까. 선물을 받고 좋아하는 키르기스스탄 친구들을 보며 방탄소년단에게 너무나 고마웠다. 고마워요. 방탄소년단!

행사장을 떠나갈 땐 큰 아쉬움이 들었다. 시간이 조금만 더 있었더라면 더 많은 교류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언젠가 다시 만날 키르기스스탄을 생각하며 다음을 기약했다.



02

알마티 문화탐방지 / 고려인 유적 방문 및 초청 간담회

고려인의 도시, 알마티를 방문하다



이성원
한국해양대학교

데니스 텐 동상

‘데니스 텐’은 알마티 시민들의 가슴에 새겨진 ‘고려인’이다. 카자흐스탄 국적의 前 피겨 스케이팅 선수로 고려인 혈통이며, 2014 소치 동계 올림픽 당시 카자흐스탄의 유일한 메달리스트였다. 피겨 스케이팅 불모지였던 카자흐스탄은 물론 중앙아시아의 소수 민족인 고려인 사회에서는 단순히 올림픽 메달리스트 이상의 높은 위상을 가지고 있는 스포츠 영웅인데 한국에서는 의병장이었던 민공호 선생의 후손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끊임없이 노력하는 데니스 텐의 이러한 모습은 과거 1937년 강제로 이주당했을 때 중앙아시아에 뿌리내리기 위해 노력했던 근면·성실성을 보여줬다. 할머니가 요리해주던 미역국을 좋아했던 데니스 텐의 일화를 듣고, 피겨 스케이팅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형상화한 동상을 보며 고려인의 삶을 느껴볼 수 있었다.



빅토르 최 동상

‘빅토르 최’는 카자흐스탄 출신 록 음악 스타로 젊은이들의 우상으로. 그의 아버지는 고려인이며, 어머니는 우크라이나 출신이다. 빅토르 최는 20세가 되던 해부터 록그룹 ‘키노’에서 작사, 작곡가 겸 리드보컬과 기타리스트로 활동했으며 영화배우로도 활동했다. 히트곡으로는 〈엘렉트리치카〉, 아프간 전쟁으로 암울했던 소련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혈액형〉, 〈태양으로 불리는 별〉 등이 있다. 고르바초프는 빅토르 최의 노래로 인해 소련 개혁을 추진하게 되었다고도 밝혔는데 변화를 위한 러시아 시민들의 열망 그 중심에 빅토르 최가 있었다. 사회현상을 대변하는 인물로서 하나의 코드가 된 빅토르 최 동상을 통해 고려인의 자부심을 실감했다.

대학생 엑스포 홍보단 후기

**고려극장**

2022년 90주년을 맞이한 ‘카자흐스탄 국립 아카데미 고려극장’은 러시아 연해주에서 설립되어 강제 아주 이후 카자흐스탄으로 이전되어 현재 카자흐스탄 국립으로 운영되고 있는 한인 공연예술(연극, 음악, 무용) 단체 및 극장이다. 심청전 등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등 모국어가 사라지지 않는 데에 큰 노력을 했고 전통문화 유지 계승에 이바지한 데에 의미가 매우 크다. 카자흐스탄에 정착한 한국의 언어와 전통문화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 고려인분들께 정말 감사함과 값진 노력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만약 고려인분들의 노력이 없었다면 지금의 한국 언어와 전통문화를 지키기 어려웠을 것이다. 앞으로도 고려인의 흔적을 찾을 수 있고 한국의 언어·문화·예술을 알리는 데 중추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라 생각된다.

문공자 선생님 초청 간담회

알마티고려문화원에서 문공자 선생님과 만났다. 문공자 선생님께서는 2000년대 초반 남편인 김젠나지 전 고려극장장과 함께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에서 유럽의 한인 디아스포라를 위한 일련의 자선 콘서트를 개최하셨으며, 2005년에는 카자흐스탄 공훈 배우 칭호 수여하셨고, 2011년까지 고려극장 단원으로서 30년간 일하였다. 고려인이신 문공자 선생님을 만나 뵈게 되어 정말 설레었고 함께 굉장히 값진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 특히 질의응답 시간에는 문공자 선생님의 고려인으로서의 생활과 다른 가족들과의 일화 등을 통해 고려인의 역사 및 고려인 삶의 애환을 직접 들을 수 있었는데, 아울러 김젠나지 선생님의 노래를 통해 타지의 삶에서 적응하기 위해 애달팠지만, 노래를 함께 부르며 극복하려고 노력했던 고려인의 삶을 들을 수 있었다.

1937년 구소련 정부가 동아시아(연해주) 지역에 거주하던 고려인들을 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시켰는데 허허벌판에 갑작스레 남겨진 고려인들은 온 힘을 다하여 자신들의 삶을 이어나갔다. 유라시아 시민대장정은 그분들의 삶의 흔적을 따라가며 동아시아 디아스포라를 이해할 수 있었으며, 현재는 카자흐스탄 사회 속에 당당히 뿌리 내리고 있는 모습을 직접 볼 수 있었다. 고려인분들의 흔적을 따라 알마티 문화 탐방지를 방문하고 고려인 유적 방문을 할 수 있었던 감사하고 소중한 시간이었다. 말로만 듣고 책으로만 봤던 고려인이 일구어 놓은 ‘동아시아 디아스포라’를 직접 확인할 수 있어 감회가 새로웠다.

03 설레는 첫 교류회, 카자흐국제관계세계언어대학



이현주
동아대학교

최선을 다한 준비

2022 유라시아 시민대장정을 시작한 뒤 처음으로 이동한 나라여서 앞으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에 대한 기대감으로 부풀어 있었다. 대장정을 떠나기 전, 대학생 대원들과 이 교류회 행사를 위해 각자의 재능을 살려 최선을 다해 준비했다. 첫 교류회 전날인 만큼 실전처럼 연습에 돌입했다. 철저한 준비를 위해 연습이 필요한 팀들은 개별 리허설을 진행했고, 장기자랑 팀도 모여 공연의 질을 높이며 노력했다. 모두가 본행사의 성공을 바랐고, 교류회 당일이 되었다.

색다른 경험, 새로운 친구

첫 교류회를 펼치게 될 카자흐스탄 국제관계 세계언어대학은 카자흐스탄 알마티에 있다. 이 대학은 1941년 소비에트 시대에 설립되었으며 14개의 언어 교육을 하고 있고, 카자흐스탄의 5대 대학으로 자리 잡은 곳이다. 언어 중 한국학은 1998년에 정식으로 개설되었으며, 현재 24주년이 되었다.

우리는 교류회 시작 약 1시간 전에 학교에 도착하여 리허설을 진행했다. 이때, 리허설을 하러 온 우리보다 먼저 와서 대기하고 있던 국제관계 세계언어대학의 일부 학생들이 있었다. 현지 학생들과 얘기를 나눠보기도 하고 친해지고 싶은 마음에 행사 시작 전에 그들의 옆에 앉아 말을 걸었다. 현지 학생들과 얘기를 나누다가 한국을 좋아하는 이유를 물으니 한국 아이돌과 드라마로 좋아하게 됐다는 것이다. 비행기로 약 7시간이 걸릴 정도의 먼 나라에서 한국의 문화를 좋아한다는 것과 그것이 좋아서 한국 자체를 좋아하게 됐다는 것, 이러한 현지 학생의 수가 많다는 것에 한류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다.

9월 16일 오전 10시 30분. 드디어 첫 교류회가 시작되었다. 각국에서 준비한 브이로그를 시청했다. 현지 학생들이 준비한 브이로그는 코로나19로 인해 바뀐 학교생활을 실제로 담은 브이로그였다. 유라시아 대장정 측의 브이로그는 내가 만든 것으로, 대학생 단원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 대장정에 참여하게 되었고, 어떻게 준비를 해왔는지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제작자이기에 영상 상영

대학생 엑스포 홍보단 후기

시간은 더욱 빨리 흐르는 순간이었고, 브이로그에 대한 관중들의 반응은 나에게 있어 중요한 사안이었다. 약 5분의 시간이 흐르고, 현지 학생과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유라시아 대장정 모든 단원에게도 큰 박수를 받았다. 부딪힘이 벽차올랐고, 밤을 새우며 힘들게 만든 것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 같았다. 국제적인 행사에 사용될 영상을 제작한 것과 타국인을 포함한 대규모의 사람들에게 영상을 보여주어 즉석에서 반응을 보는 것도 잊을 수 없는 특별한 경험이었다.

다음으로 대학생 단원 PPT 팀은 ‘2030 부산 엑스포, 우리가 나아갈 길’을, 현지 학교 측에서는 ‘한국, 한국어, 내가 꿈꾸는 나의 미래’에 대한 PT를 진행하였다. 기계오류로 인한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백스테이지에서 피피티를 관리하였다.

장기자랑이 다음 순서로 진행됐는데, 서로의 나라의 전통춤 공연이 이뤄져 카자흐스탄과 한국의 문화적 교류를 현장에서 생생히 볼 수 있었다. 또, 각국의 인기 있는 노래들로 공연이 이뤄졌는데, 유명한 한국 아이돌의 곡이 장기자랑에 나왔을 때, 현지 학생들이 노래를 따라부르며 열띤 호응을 해주었다. 또 한 번 한류의 인기를 실감했다.

교류회가 끝나고, 현지 학생들과 선물을 교환하며 사진을 찍고, 서로의 SNS를 교환하기도 하면서 활발한 교류를 할 수 있었다. 처음에 왔을 때 가장 친해졌던 현지 학생이 있는데, 한국 이름으로 다온이었다. 이 친구가 나의 노래 공연 때, 큰 목소리로 “현주 언니 파이팅”이라며 응원해줬기에 제일 좋은 선물을 주고 싶어서 한국의 유명 과자와 마스크팩을 선물로 주었다. 타국인과의 교류에 대한 조금의 걱정이 있었는데, 친해지는 방법이 한국인과 같다는 걸 알게 되었다. 서로의 관심사를 나누고, 근황을 묻고, 칭찬을 하는 등으로 많은 친구를 사귄 수 있었다. 또한, 교류회 이후에 현지 학생들이 부산이나 엑스포에 관해 관심을 가지며 질문을 하는 것을 보고, 우리의 홍보로 현지 학생들이 부산과 2030 부산 월드 엑스포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하게 된 것 같아 뿌듯했다. 단원들의 홍보 방식이 PT, 브이로그, 레크리에이션으로 다양했기에 현지 학생들과 관계자분들이 알기 쉽고, 더 흥미롭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이 긍정적인 인식을 하게 한 데에 큰 작용을 했다고 생각한다.



04 400명이 참여한 비슈케크 국립대 교류회



유채연
동아대학교

교류회를 위한 5시간의 여행연습 준비

비슈케크 국립대 교류회는 유라시아 시민대장정 기간의 교류회 중 가장 많은 인원이 참석하는 행사였다. 카자흐스탄에서 이미 한 번의 교류회를 했었지만, 현장에서의 유동적인 상황으로 많은 일정이 변동된다는 것을 알아서 여전히 긴장되었다. 교류회에서 레크레이션팀의 비중이 높았기 때문에 그만큼 준비도 많이 해야 했다. 대학 내의 교류회 장소를 본 순간 얼음이 되었다. 카자흐스탄에서 했던 규모와 다르게 이번 교류회 장소는 큰 강당이였다. 많은 인원이 참여한다고 들었지만, 이 정도일 줄 몰랐고, 우리나라와의 교류가 비슈케크에서는 굉장히 뜻깊게 생각하여 기자를 포함한 고위 관리직 몇 분도 참석하신다고 하셨다.

양 국가가 이번 교류회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만큼 다음날의 교류회를 위한 리허설을 시작했다. 많은 인원이 참석하는 만큼 비슈케크 국립대 총장님도 전반적인 리허설을 감독하셨고, 그분의 허락하에 진행되어야 하는 상황이 많다 보니 리허설 마치는 시간이 오후 3~4시쯤이었던 것 같다. 오전 10시에 시작할 리허설이었는데 장장 5시간이 걸린 셈이었다. 점심도 거르고 준비한 만큼 다음날의 교류회를 위해 모두가 최선을 다했다. 이제 교류회 성공적으로 마치는 일만 남았다!

타지키스탄-키르기스스탄 전쟁으로 인한 추모일 선포

전날 모두가 열심히 준비한 리허설이 끝나고, 드디어 교류회 당일 되었다. 하지만 교류회를 위해 준비했던 모든 행사를 진행할 수는 없었다. 전날 타지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이 국경에서 전쟁 발발로 인해 키르기스스탄 군인 100명이 목숨을 잃었고, 대통령령으로 교류회가 진행되는 날이 국가추모일로 선포가 된 것이다. 이렇게 되면 공식적인 행사에서 문화공연 등의 이벤트를 할 수 없으므로 양국의 나라에서 준비한 레크레이션의 대부분과 장기자랑이 생략된다. 준비한 것을 다 못한다는 아쉬움보다는 유혈사태가 일어난 만큼 키르기스스탄의 국민이 많이 상심하고, 교류회에 참가하는 모든 사람도 같은 마음일 거라는 생각을 하니 마음이 좋지 않았다.

대학생 엑스포 홍보단 후기



그래도 공식적으로 준비한 행사인 만큼 남은 일정이라도 마무리 잘하자는 마음으로 교류회에 임했다. 다행히 같이 준비한 비슈케크 국립대 학생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었고, 아이스 브레이킹 및 레크레이션의 투호 놀이, 피피티 발표, 교류회 영상 시청 등 교류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다. 교류회의 하이라이트 2030부산월드엑스포 챌린지를 위해 양국의 대학생들이 무대 위로

올라와서 춤을 가르쳐 주고, 촬영을 위한 연습 시간을 가졌다. 항상 우리는 타국의 학생들이 챌린지 댄스를 어려워하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지만, 막상 학생들을 만나 직접 이야기해보고 춤을 가르쳐 주면 즐겁게 곧잘 따라 하여 안심하고 결과적으로 영상 퀄리티도 좋았다.

마지막으로 비슈케크 국립대 학생들이 우리를 위해 준비한 공연을 짧게나마 보여주고 싶다고 먼저 장기자랑을 선보여 주었고 이에 우리는 K-POP 댄스와 노래를 뽐내며 학생들의 많은 호응을 이끌었다. 비슈케크 국립대 학생들도 우리를 위해 준비한 공연을 보며 정말 교류회를 통해 두 국가가 하나로 연결된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렇게 정말 교류회를 마무리 지었다!



교류회를 통해 느낀 점

교류회마다 느끼지만, 어느 국가를 방문하든 인종과 문화는 다를 수 있지만, 모두가 한 지구촌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하나의 가식 없이 우리 대원들의 타국 방문을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사랑하는 것도, 우리가 준비한 발표 및 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주는 모습들을 보면서 감동하였다. 특히 키르기스스탄은 유라시아 시민대장정이 아니면 방문하지 못했을 국가라고 생각해서 더욱 뜻깊은 교류회가 아니었나 생각한다. 아직 월드 엑스포가 부산에서 열리는지는 미정이지만 우리가 방문하는 국가마다 우리의 부산 월드 엑스포 개최를 진심으로 염원해주고, 응원해주는 모습들이 아직도 생생하다.



많은 학생과 SNS 친구도 맺고, 아직도 가끔 연락하는 친구들이 있다. 연락하면서 그때의 소중한 추억을 떠올리곤 한다. 내 인생 절대 잊을 수 없는 최고의 순간 중 하나였고, 이 마음 그대로 2030 부산 월드 엑스포가 개최되는 그 날까지 열심히 응원할 것이다!

05 대학 교류 행사, 파리 시테대학



박민서
동아대학교

이번 대장정 대학생 교류 활동 중 마지막 대학 교류 행사가 열리는 파리 시테대학으로 가는 날은 햇빛도 짙었고 날씨도 너무 좋았다. 그래서 우리 팀원 모두 가는 내내 설레는 마음과 발걸음으로 간 것이 지금도 기억이 남는다.

파리 시테대학에 도착하자 내 옆에는 시테대학의 한국학과에 재학 중인 토미라는 친구가 앉아 있었다. 토미는 한국말을 굉장히 잘하는 친구로 키가 크고 피부가 하얗고 파란 눈의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프랑스인처럼 생긴 친구였지만 한국말을 너무 잘해서 우리 모두 당황하였다.

먼저 우리는 한국 친구들과 프랑스 친구들이 처음으로 만나 어색했던 분위기를 없애기 위한 아이스 브레이킹을 진행하였다. 간단하게 서로 자기소개를 하자 프랑스 친구들이 한국말로 자기소개를 발표해 주었다.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을 추구하는 형태로 바뀌었고 프랑스 또한 마찬가지였다.

우리는 서로 만든 자기소개 영상과 학과 소개 영상을 보았다. 한국학과 친구들이 어떤 수업을 하고 있으며, 무엇을 배우고 있고 한국어를 배울 때 어떤 어려운 점이 있는지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해할 수 있어 유익한 시간이었다.

우리가 부산역에서부터 파리까지 대장정을 통해 온 영상을 소개하고 여기까지 오기 위해 많은 준비를 한 영상을 보여줄 때는 너무 뿌듯했고 그간의 고생들이 보상받는 기분이었다. 가장 중요한 우리 엑스포를 영상으로도 알리고 PPT로도 발표하여 부산이 2030 엑스포 유치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고 힘쓰고 있다는 것을 알릴 수 있는 시간이었다. 또한, 에밀리라는 친구와 토미는 한국에서 5개의 국가를 거쳐 온 우리를 위해 파리 시테대학에 관해서 구석구석 소개해 주기 위해 많이 준비하고 우리를 환영해주고 반겨준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 너무 감동적이었다.

파리 시테대학은 정말 아름답고 자유로운 학교였다. 학생들은 점심시간에 잔디에 돛자리를 깔고 소풍하러 온 것처럼 서로 원하는 메뉴를 앉아서 먹고

대학생 엑스포 홍보단 후기



햇볕을 쬐며 수다를 떠는데 영화에서 보던 장면들이 생각나고 행복해 보였다. 또한 파리 시테대학도 학교 식당이 있고 특히 학식이 맛있어서 줄을 선다는 사실에 한국 대학생들과 다름없구나 하고 토미와 같이 웃었다. 그리고 프랑스 친구들이 예상외로 K-POP에 관심이 많아 놀라웠다. BTS는 물론이며 블랙핑크까지 다들 K-POP에 진심인 모습에 왠지 모르게 뿌듯하고 애국심이 생겼다. 함께 엑스포 댄스 챌린지 릴스도 찍었으며 다들 너무 잘 따라 해주어 즐거운 경험이 되었다.

오징어 게임을 통해 유명해진 한국 전통 게임도 같이해보았다. 딱지치기 게임을 같이 했는데 프랑스 친구들이 딱지를 보자마자 오징어 게임에서 본 적이 있다며 알아채서 너무나 뿌듯했다. 그리고 프랑스 친구들이 딱지치기 실력도 수준급으로 우승자는 프랑스 친구가 될 정도였다. 유라시아 대장정이 아니었으면 경험하지 못했을 일들을 경험하였고 소중한 친구들과 좋은 시간을 보냈고 엑스포 관련하여 유치하는 데 힘써서 뿌듯했다.



06 우리는 2030 부산 월드 엑스포 서포터즈다



송지은
경성대학교

2022 시민대장정 레크레이션 단원으로 선발된 후, 대학생 교류회에 선보일 레크레이션과 장기자랑 준비를 한 달 동안 준비하였다. 몸은 지치고 힘들었지만 다른 나라 대학생들과 교류할 생각과 2030 부산 월드 엑스포를 위해 다 같이 모여 준비하고 있다는 생각에 뿌듯한 마음뿐이었다. 하지만 준비하는 과정에서 언어가 다른 나라 학생들과 잘 진행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한가득하였다. 그런 걱정과는 달리 한국학과 학생들의 한국어 실력에 먼저 놀랐고, 수줍어하지 않고 먼저 다가오는 모습에 감동하였다. 사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에 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몸이 좋지 않아 항상 웃고 있지만은 않았다. 그런데도 적극적으로 교류에 임해준 중앙아시아 학생들에게 고맷다. 다행히도 우즈베키스탄에 도착하고 몸 상태를 회복해 다른 때보다 더 좋은 모습으로 교류회를 할 수 있었고, 장기자랑 노래를 부르고 난 후 다른 단원들에게 이번이 역대급이었다는 말까지 들을 수 있어 뿌듯하였다. 동방대학교에서 첫 순서가 우즈베키스탄 대학생의 사물놀이였는데, 한국 전통 놀이를 직접



대학생 엑스포 홍보단 후기

준비했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실력 또한 정말 대단하였다. 우리 단원들을 반겨주기 위해 몇 날 며칠을 연습한 모습이 그려져서 고마웠고, 그에 보답하기 위해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다짐했다. 아쉽게도 시간 관계상 레크레이션은 하지 못했다. 그러나 못다 한 기량을 보태 노래와 우즈베키스탄 전통춤을 멋지게 선보였다. 노래를 부를 때 타 대학도 호응이 좋았지만 동방대학교 학생들의 호응도가 가히 최고였다. 고음을 부를 때 점점 커지는 환호성에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고, 내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호응해주나 싶을 정도로 반응이 좋았다. 좋은 모습을 최대치로 보여줄 수 있도록 처음 사물놀이를 반겨 준 친구들에게도 고마웠고, 피곤할 텐데도 정말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참여해 준 팀원들에게도 고마웠다. 모든 교류회가 끝난 후 생각보다 많은 친구가 내게 다가와 한국어로 말을 걸어주었고, 사진 찍자고 하여 '잘 해냈구나' 하는 생각에 한시를



놓였다. 우리 단원들의 모든 활동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과 부산에 대해 조금 더 알릴 수 있어서 영광이었고, 많이 접할 수 없는 기회를 주신 분들께도 감사한 마음뿐이다. 우리 대학생 교류회가 2030 부산 월드 엑스포에 한 걸음을 더 다가갈 수 있었던 활동, 도움이 될 수 있었던 활동이었으면 좋겠다. 2030년, 부산에 월드 엑스포를 유치시키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2030 부산 월드 엑스포 파이팅!

07

평화와 화합의 조각이 모여 뜨거운 교류의 장으로, 파리 랜덤 플레이 댄스



조윤경
동서대학교

라데팡스에서야 야외퍼포먼스로 K-POP 랜덤 플레이 댄스가 진행될 예정이었다. 조선통신사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5주년을 기념하기 위함으로 평화의 상징인 조선통신사가 평화의 조각들을 모아 평화를 이룬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또 올해 유라시아 대장정은 2030 부산 월드 엑스포 유치 홍보를 함께 하였는데, 부산의 우수 문화 콘텐츠인 랜덤 플레이 댄스를 통해 2030 부산 월드 엑스포 유치를 지원하는 의미를 담기도 했다. 야외퍼포먼스가 진행되는 라데팡스는 '파리의 제3의 개선문'으로 불리는 곳으로 한 덴마크 건축가가 '세계를 향해 열린 창'이라는 의미를 담아 이 건축물을 설계하였다고 한다. 나는 의미를 알게 되었을 때, 평화의 상징인 조선통신사를 기념하고 세계적이 혁신·협력의 장이 되는 월드 엑스포 유치를 지원하는 이번 퍼포먼스와 정말 적합한 장소라는 생각이 들었다.

한국 유튜브 채널 100위 안에 드는 인플루언서 고퇴경과 함께하고 외국에서 많은 외국인과 춤을 추게 될 순간이 기대되었다. 또 춤이 좋아 중학생부터 대학생까지 댄스동아리로 활동해오고 있는 나에게는 너무나도 설레는 활동이었다. 하지만, 유라시아 시민 대장정 단원으로서 그리고 장기자랑 댄스팀의 역할을 맡은 사람으로서 이 활동에서 크게 활약해야 할 것만 같고 잘 해내야 할 것만 같은 생각들로 부담감이 느껴지기도 했다. 도착해서 눈에 들어온 땀 뚝린 라데팡스 건축물은 주위를 압도하는 듯한 느낌을 주었으며 광장에 모인 수많은 사람은 나의 긴장감을 한층 더 고조시켰다. 별도의 장비 없이 오직 사람들로 K-POP 랜덤 플레이 댄스 무대가 완성되었다. 나는 처음 보는 외국인들 옆에 유라시아 대원들과 자리를 잡고 노래가 흘러나오기만을 기다렸다.

랜덤 플레이 댄스곡은 K-POP을 이끌어가고 대표하는 가수들의 노래가 끊임없이 흘러나왔다. 무작위로 틀어지는 노래 첫 소절만을 듣고 친숙하게 안무를 따라 하는 외국인들이 너무 놀라웠고, 한국인도 잘 모르는 노래들이 몇 곡 있었는데 그마저도 친숙하게 따라부르는 외국인들을 보면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한류 문화가 세계 곳곳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실제로 체험해보니 새삼 감동적이면서 부듯한 마음이 들었다. 또, 안무를 완벽하게 알진 못해도 자신감을 가지고 중앙에서 춤을 추는 외국인들도 많이 있었는데, 눈빛은 반짝반짝 빛났고 행복한 미소로 이 순간을 온전히 즐기고 있었다.

나는 파리 랜덤 플레이 댄스에 참여하는 동안 정말 많은 교류와 화합의 순간을 경험하였다. 나에게 맞춰 백업 댄서 파트 역할을 해주었던 외국인이 있었다. 약속이나 한 듯 나와 한 팀이 되어서 무대(춤)를 완성해 나간 것이 너무 신기하게 느껴졌다. 그리고 춤을 추다가 옆에 있던 외국인과 부딪힌 적이 있었는데 서로 계속 춤을 추면서 미안하다는 말을 전하고 유쾌하게 웃어넘겼던 상황도 있었다. 짧게 편집된 80~90개의 K-POP이 흘러나오는 동안 이렇게 다양한 일들이 일어났었고, 이러한 화합과 교류 그리고 양보와 배려는 이곳에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었다.

뜨거운 교류의 장이었던 K-POP 랜덤 플레이 댄스가 마무리된 후, 나를 찾아온 외국인이 있었다. 그 외국인은 나에게 “춤 잘 추더라~ 함께해서 너무 재미있었어”라는 말을 남겨주었는데 단체복 티셔츠 엑스포 로고를 기억하고, 2030 부산 월드 엑스포 범시민유치위원회 팀장님께 물어 물어 나를 찾아주었다고 했다. 그 말을 전해 들었던 순간은 유라시아 시민대장정 활동 중 가장 몽클했던 순간 TOP 3에 선정할 수 있을 정도로 감동적이었다.

나에게 파리 랜덤 플레이 댄스는 유독 쉽게 잊을 수 없었으며, 여운이 오래 남았던 활동이었다. 평소에 경험해볼 수 없는 기회라는 점도 있었겠지만, 크고 멋있는 무대가 아닌 평범한 광장에서! 까다로운 규칙도 별다른 형식도 필요 없이! 모두가 한 방향을 향해 같은 음악, 같은 퍼포먼스를 진행하였다는 점에서 인상 깊었고, 다양한 국가, 인종 그리고 언어가 섞여 있었지만, 문화라는 요소 하나로 모두가 하나로 어우러질 수 있었고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 감동적이었다. 다양한 외국인은 물론 유라시아 시민대장정 대원들 모두가 화합하는 모습을 보면서 유라시아 시민대장정의 의의와 2030 부산 월드 엑스포의 의의를 더욱더 분명하게 느낄 수 있었다.

앞으로도 활발한 문화교류를 통해 많은 사람과 소통하는 유라시아 시민대장정이 계속되길 바란다. :)

08 프랑스와 벨기에에서 직접 만나본 엑스포



화예림
부산대학교

유라시아 대장정을 떠나기 전, 여느 하나 설레지 않는 것이 없었다. 더욱이 코로나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지금 중앙아시아와 프랑스를 2주에 걸쳐 방문해 5개국의 대학생들을 만나고 또 캠페인을 기획하고 준비하며 노트북 스크린 너머로만 공부했던 엑스포 개최지에 직접 간다는 사실은 대장정 준비의 고됨도 잊도록 만들었다. 이에 부산을 대표한다는 자긍심과 잘 해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까지 뒤섞인 다소 복잡한 마음으로 시작한 여정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유라시아 대장정 11일 차, 파리 시테대학까지 대학생 교류회를 마무리하고 나서는 비로소 부담감을 내려놓을 수 있었고 오롯이 낯선 타국을 실감할 수 있었던 것 같다. 그렇게 시작된 약 4일간에 걸친 파리·브뤼셀 엑스포 스테디의 첫 번째 장소는 ‘오르세 미술관’이었다. 사실 솔직한 마음으로는 평소 미술과는 거리가 멀었던지라 크게 기대하고 있진 않았는데, 그런 나조차도 익숙하고 많이 접했던 작품들이 많아 반가운 마음으로 즐겁게 감상할 수 있었다. 또, 개별적으로 오디오 가이드와 이어폰이 제공되고 한국어도 서비스되어 친숙하지 않은 외국의 미적 공간임에도 소외되지 않고 근현대 인상파 작품들을 만나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오르세 미술관은 본디 1900년 파리 박람회의 교통 접근성을 위해 지어진 ‘오르세 역’이었다고 들었는데 당시 기차역의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시계라는 요소를 매력적으로 돋보이게 개조한 점이 인상 깊었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시계 앞에서 사진도 남기고 미술관 감상 후에는 서점에서 시계 조형물이 그려진 엽서를 구매해 이 시간을 종종 추억할 수 있게 하였다. 한편 파리의 건물들이 대부분 오래되었다는 점을 연결해 생각해본다면, 무조건 새로운 것이나 나온 것을 추구하기보다는 옛것의 역사를 간직하고 자연 친화적 관점에서 최소한의 훼손을 추구한다는 가치가 느껴져 본받을 만하다고도 생각하였다.

다음날 방문한 ‘프티팔레 미술관’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1900년 파리 박람회를 계기로 지어진 미술관으로, 규모는 오르세 미술관보다는 다소 작았지만, 규모가 큰 그림이나 조각상이 대다수로 오히려 웅장한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한 곳에는 야외정원과 테라스, 카페가 이어진 구조의 공간도 마련되어있어 ‘프랑스’

대학생 엑스포 홍보단 후기



하면 막연히 떠오르는 ‘애프터 눈 티와 함께하는 여유’를 온전히 즐길 수 있는 곳이었다. 게다가 우리가 방문했던 날이 조금 흐리고 비가 오는 날이었는데 오히려 이 날씨가 건물과 나무, 풀로 구성된 풍경을 한층 운치 있게 만들어주어 나에게서는 파리에서의 행복했던 순간 중 하나로 남아있다.

13일 차에는 프랑스 파리에서 탈리스 열차를 통해 별다른 입출국 절차 없이 한 두어 시간 정도면 이동이 가능한 벨기에 브뤼셀로 향했다. 파리 박람회를 상징하는 건축물이 에펠탑이라면 브뤼셀 박람회를 상징하는 건축물은 아토미움이라고 할 수 있다. 엑스포 역사를 공부하면서 아토미움은 철의 분자 모양으로 지었다는 사실에 참 기발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면서도 같은 이유로 오히려 그 크기는 사실 가능성이 잘되지 않았었는데, 직접 보니 생각보다 훨씬 큰 규모였다. 내부에는 브뤼셀 박람회 당시의 사진들과 전시물을 살펴볼 수 있는 박물관의 역할 이외에도 다양한 주제의 전시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모습이었다.

짧다면 짧은 브뤼셀 엑스포 스터디 투어를 끝나치고 우리는 파리로 다시 돌아왔다. 그렇게 해가 질 무렵 향한 곳은 센 강이었다. 센 강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지정된 곳으로, 이 사실은 센 강 유람선을 더욱 기대하게 했다. 저녁 7시 정각이 되자 예쁘게 반짝반짝하기 시작하는 에펠탑을 보며 유람선은 출발하였다. ‘에펠탑’은 1889년 파리 엑스포를 위해 지어진 건축물로 현재는 파리, 더 나아가 프랑스를 상징하는 그 자체가 되었지만, 당시에는 놀랍게도 많은 반대에 부딪히기도 했다고 한다. 이를 극복하고 세계적인 명소로 거듭난 에펠탑의 아름다운 현 모습을 보며 엑스포의 영향력을 또 한 번 되새길 수 있었다. 이후 이어진 센 강 유람선의 전경은 전반적으로 인근 오래된 건물들과 은은한 빛이 어우러져 고즈넉하고 평화로운 느낌이었다. 그 중 특히 눈에 띄는 것은 금 조각상이 조명 빛을 받아 화려함을 뽐내는 ‘알렉상드르 3세 다리’였다. 알렉상드르 3세는 러시아 황제의 이름으로 프-러동맹을 기념하기 위해 지어졌으며 마찬가지로 1900년 파리 박람회가 개최되는 해에 개통되었다고 한다. 당시에는 박람회를 통해 국가의 능력을 보여주려는 목적이 강했기 때문에, 여러 나라가 이 다리를 통해 프랑스의 높은 기술력과 예술성을 체험할 수 있었을 것 같다. 책이나 자료를 통해 서만 보았던



한국과 부산의 위상을 직접 몸으로 체험할 수 있었던 신선한 시간이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유라시아 시민대장정은 특히 관광과 컨벤션을 공부하는 나에게서는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한 경험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09 파리에서의 마지막 여정 '부산데이' 파티



황세영
동의대학교

파리에서의 마지막 여정으로 '부산데이' 파티를 주프랑스한국문화원에서 열었다. BIE 대표 및 현지 한류 인플루언서를 초청하여 자리가 더욱 빛났고, 온·오프라인에서 많은 사람에게 관심을 유도할 수 있었다. 파티는 개회사, 축하, 전시 관람, 홍보 부스 운영 및 영상 관람, 문화체험, 한국 국악 공연, 만찬 순으로 진행되었다. 사회자들의 안정적이고 유쾌한 진행은 파티의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한국어와 프랑스어를 순차적으로 진행하였으며, 참관객들과 상호교류는 활발했다.

한복을 입으신 한국 여성분들의 국악 공연으로 무대에서 한국적인 우아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었다. 가수 BTS 노래와 가야금의 협업 연주는 많은 사람이 알아봐 줘서 신기했지만, 마지막에 연주해주신 한국 민요가 훨씬 더 어울리고 듣기가 편안했다. 아쉬운 부분도 있었지만, 연주와 성악가의 노래는 무척 반응이 좋았다.

안성민 단장님께서 개회사 발표 때 착용하신 빨간 복식들은 너무 잘 어울리셨고, 눈에 띄었다. 한국과 한복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알릴 수 있었다.

유라시아 시민대장정 여정으로 단원 소개와 프로젝트를 설명하였다. 이후 영상도 같이 시청하며 프랑스 시민들이 다들 고생했다고 손뼉 쳐주셨다. 문화원 곳곳에서 비디오가 상영됐었는데, 기분이 오묘하면서 되게 뿌듯했다. 대장정을 되돌아볼 수 있는 영상이었다.

'부산데이'의 컨셉으로 한식과 포장마차의 문화 소개가 있었다. 사회자가 프랑스로 한식의 오방의 의미와 건강식의 중요성, 부산을 대표하는 음식(죽발 해파리냉채, 동래파전, 씨앗호떡, 부산어묵 등)을 소개하였다. 특히 포장마차 주제로 석사학위 받은 프랑스인의 한국 포장마차 스토리텔링은 무척 의미 있고 재미있었다. 한국 하면 전통적으로 생각나는 술집 모양새인 '포장마차'를 프랑스인이 직접 유래부터 특징까지 잘 설명해주셔서 가장 인상에 남았다. 야외

대학생 엑스포 홍보단 후기



현장에서 조리된 부산어묵과 씨앗호떡을 ‘오이소 포장마차’에서 제공하였다. 이외 각테일 뷔페 테이블은 실내에 설치하여 동선을 최소화할 수 있었고, 디저트도 준비되어 있어 입이 심심할 겨를이 없었다. 바 테이블에서 접시를 담아 맛있게 시식했으며, 한국의 소주와 맥주도 여러 외국인에게 맛보여 줄 수 있어 의미 있었고, 파티에서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어서 좋았다. 레크레이션팀의 명분으로 진행된 2030 부산 월드 엑스포의 퀴즈를 사회하였다.

프랑스 시민들이 부산에 대해 생각보다 관심이 많고, 퀴즈를 잘 맞춰주시고 진심으로 부산을 응원하는 거 같아 감동스러웠다. 다들 ‘부산에 유치해~’라고 크게 말씀해주셨다. K-POP 댄스로 댄스팀이 야외에서 춤을 추었다.

반응이 좋아서 프랑스 시민들과 함께 춤을 춰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역시 K-POP의 인기가 컸다. 야외 조명들과 시민들의 웃음이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실내에서 진행된 캘리글라피의 인기도 상당히 좋았다. 한국에 관심이 많은 프랑스 시민들이 엑스포의 응원 문구를 적고 캘리글라피가 완성이 되면 기념품으로 가지고 가셨다.

앞으로도 부산과 한국을 열정적으로 홍보하여 여러 나라들의 꾸준한 관심이 있으면 좋겠다.



중앙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알마티시와 우호 협력 도시 MOU를 맺다



박재영

부산광역시
외교통상과
신외교팀장

코로나로 인해 2년간 비대면으로 추진된 유라시아 대장정이 다시 오프라인으로 재개된 뜻깊을 때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함께 참여하게 된 점은 무척 보람되고 자부심 느껴지는 일이다. 13박 15일의 일정을 앞두고 부산역에서 개최한 출정식에서 선서를 마친 우리는 어느 때보다 막중한 임무를 띠고 출발한 이 여정에서의 우리의 임무와 마음가짐에 대해 한 번 더 마음을 다지고 열차에 올랐다고 생각된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를 거쳐 벨기에와 프랑스에 이르는 긴 여정 동안 우리는 방문국 주요 도시와의 교류 및 우리 시 도시 브랜드 홍보 외에도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홍보라는 막중한 임무를 띤 민간외교관이라는 마음으로 출발했고, 일정 내내 그 마음을 잃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운영진 후기

돌이켜보면, 운이 좋아 긴 여정 동안 한 건의 사고도 없었고 애초 계획대로 순조롭게 행사를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 단장님이신 시의회 안성민 의장님과 부단장님이신 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박희용 의원님을 비롯한 리더들의 따뜻한 보살핌과 방향 제시가 있었고 묵묵히 행사를 준비해 준 부산국제교류재단 관계자들의 노력이 있었으며, 우리 대학생 엑스포 홍보단의 열정과 헌신, 그리고, 그 모든 활동상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영상과 사진, 기사로 담아주신 기자님들의 숨은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부산시의 입장에서 가장 큰 성과가 무엇이었나 돌이켜보면, 중앙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알마티시와 우호 협력 도시 MOU를 맺었다는 것이다. 알마티시는 카자흐스탄 최대도시이자 문화와 상업의 중심지로, 알마티시와의 우호 관계 수립은 양 도시 간 경제, 문화, 금융 분야 등에서의 공동 발전과 도시역량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며, 이번 MOU를 시작으로 타 도시와의 협력관계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지금 생각해도 가슴 뿌듯했던 부분은 중앙아시아 및 유럽에서의 한류 열풍을 몸소 느끼고 왔다는 점이다. BTS로 대표되는 K팝 열기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뜨겁다는 점과 그 때문인지 우리나라에 대한 그들의 호감도가 무척 높다는 사실이다. 행사를 진행하는 동안 만난 현지인들의 사진 촬영 요청은 혼한 일상이 되어 버렸고, 준비한 행사마다 현장의 참여와 협조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잘되어 나름 신이 났던 것도 같다.

마지막으로, 빛나는 재능과 열정을 가진 우리 2030 대학생 엑스포 홍보단과 만나고 함께 한 시간이 가장 소중하고 뜻깊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2022 유라시아 시민대장정에 참여하시고 도움을 주신 모든 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운영진 후기



이 혜 진
부산광역시
외교통상과
주무관

준비과정에서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이번 유라시아 시민대장정을 준비하면서, 또 대원으로 참석해 긴 여정을 함께해서 정말 영광이었다. 항상 열정적으로 뛰어나신 단장님 부단장님, 각종 행사를 열심히 준비해주신 재단 담당자들, 그리고 긴 일정을 잘 소화해준 학생들 등 함께했던 분들이 좋은 분들이라 더욱 즐거운 여정이었던 것 같다.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대학생 교류를 보면서 열정적인 학생들의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았고,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랜덤 플레이 댄스 코너에서는 나도 잘 모르는 한국의 노래들을 지구 반대편의 젊은이들이 한국어로 따라 부르면서 안무를 정확하게 추는 모습이 너무나 신기하면서 동시에 자랑스러웠다. 문화의 영향력이 정말 큰 것을 다시 한번 체감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2022년도 유라시아 시민대장정은 끝이 났지만, 즐거웠던 추억은 영원히 간직하고 싶다. 다들 함께해서 정말 영광이었다. 감사합니다!!





김자영

부산광역시
외교통상과
주무관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았던 어두운 팬데믹 터널을 지나 이제 정말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음을 느낀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터널을 지나는 동안 대한민국의 국격과 위상이 달라졌음을 체감할 수 있어 더 기뻐했습니다. 방문하는 국가마다 거리에서 코리아, 부산을 외치며 먼저 다가가 인사하고 환영해주는 현지 시민들의 따뜻한 환대에 가슴이 뭉클해졌고, 반짝반짝 빛나는 대학생 엑스포 홍보사절단 친구들의 눈부신 활동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현지 역사와 문화에 대한 탁월한 혜안으로 단원들의 식견을 넓혀주신 너그럽고 따뜻한 안성민 단장님과 박희용 부단장님, 땀 흘린 일정에도 불구하고 방문하는 기관마다 2030 월드 엑스포 유치홍보를 위해 열정적으로 활동해주신 두 분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절기상 초가을임에도 유난히 무덥고 강한 햇살을 온전히 맞으며 빈틈없이 이어지는 일정 속에서 각자의 역할을 헌신적으로 수행해 주신 단원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 큰 영광이었습니다. 든든한 동지애로 맺은 소중한 인연, 앞으로도 더욱 풍성하게 엮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세계로 향하는 길, 부산에서!



이 치 우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차장

2021년 10월 부산국제교류재단에 부임한 후 첫 공무국외여행으로 12박 14일의 일정으로 유라시아 시민대장정의 사전답사를 부산시와 함께 진행했는데, 재단에서는 코로나로 인해 해외 교류사업이 중지되거나 비대면 사업으로 진행하던 와중에 재개된 해외 교류사업이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이전에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출발하던 경로를 변경하여 부산에서 출발하여 카자흐스탄 알마티,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 우즈베키스탄의 타슈켄트를 지나 프랑스 파리까지의 여정을 사전에 답사하며 위험 사항은 없는지, 현지 기관의 협조 요청 등을 통해 9월에 있을 본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점검하기 위함이었다. 출발할 때까지만 해도 현지에서의 코로나와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 유행병의 위협에 과연 행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으나, 실제로 거점도시의 각 해외공관 및 지역 관계자를 만나서 협조를 구하고 행사 진행과 관련한 협의를 해 나가며 걱정들을 하나씩 하나씩 없애 나갈 수가 있었다.

추석 연휴 뒤 바로 있을 9월 13일 출정식을 앞두고 9월 3일부터 한국 귀국



자 대상 코로나 방역 조치가 해제되고 대장정 단원들은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안성민 부산시의회 의장님을 단장으로, 박희용 행정문화위원회 의원님을 부단장으로 하여, 22명의 단원은 부산역에서 박형준 시장님께서 참석한 출정식을 시작으로 13박 15일간의 대장정을 힘차게 출발하였다.

카자흐스탄 알마티에 도착하자 알마티 시청 고위관계자의 열렬한 환송식을 시작으로 현지에서 대장정을 시작하였다. 대장정 2일 차엔 중앙아시아 도시교류로는 처음으로 부산시-알마티시 우호 협력 도시를

체결하였다. 올해 부산은 카자흐스탄과 많은 인연이 있었는데, 한국-중앙아 수교 30주년을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와 더불어 5월에는 부산에 카자흐스탄 총영사관이 개관하였다. 총영사관 개관과 함께 우리 유라시아협력센터에서 카자흐스탄 영화제를 개최하는 등, 뜻깊은 행사를 실시하였다. 그 외에도 중앙아시아 3개국 대학교에서의 대학생 교류와 부산외국어대학교와의 MOU 체결로 부산과 중앙아시아와의 체감상의 거리가 한결 가까워지는 느낌을 받았다. 또한 부산 시의회와 비슈케크 시의회를 방문해 부산-비슈케크 시의회 협력 활성화 방안과 사절단 방문 교류 등의 실질적인 교류방안에 관해서도 협의를 이어나갔다.



올해 유라시아 시민대장정의 표이기도 하며 부산시의 최대 과제인 ‘2030 부산 월드 엑스포 유치’를 목표로 방문하는 도시의 기관과 사람들에게 ‘2030 월드 엑스포 부산’ 유치를 위한 협조와 지원을 위해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였다. 특히 대장정의 피날레 행사인 ‘부산데이 인 파리’ 행사는 프랑스 한국문화원에서 현지의 한류 인플루언서 등 약 130명이 참석해 유라시아 시민대장정 영상과 2030 부산 월드 엑스포 홍보영상, 그리고 부산 출신의 국악 공연의 행사를 진행하였고 이후 ‘오이소 부산 포차’로 진행된 만찬에서는 부산을 대표하는 씨앗호떡과 부산어묵, 한식 뷔페로 차려져 부산이라는 도시의 매력을 파리시민들에게 알리는 것과 더불어 ‘2030 월드 엑스포’가 부산에 유치되어야 함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파리에서의 행사를 끝으로 15일간의 유라시아 시민대장정을 마치고 온 지 2개월이 더 지난 지금, 아직도 대장정 단원들과의 인연을 이어나가고 있으며,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아있다.

마지막으로 대장정 전 일정 동안 대원들을 잘 이끌어주신 안성민 부산시의장님을 비롯해 박희용 의원님, 그리고 함께 한 모든 대원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 드린다.

긴 여정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과의 관계, 안전



전 미 경
부산국제교류재단
유라시아협력센터 팀장

올해 1월에 유라시아협력센터에 발령받은 후, 그간 맡아왔던 교류 협력사업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일하던 나는 유라시아라는 국가 범위 안에서 과연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떤 실적은 만들 수 있을 것인가를 가장 먼저 고민 한 거 같다. 그 고민 속에서 얻은 답은 ‘네트워크’였다.

대내외적으로 3년 만에 재개되는 ‘유라시아 시민대장정’에 거는 기대는 컸으며 특히 2030 부산 월드 엑스포 유치와 연결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였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으로 정세가 불안정하고 코로나는 또다시 재확산, 자매도시 기념사업도 취소하는 등 연초 고민하고 계획되어 있던 사업도 변경해야만 했다. 과연 유라시아 시민 대장정은 출발이나 할 수 있을까 매일 생각했다.

‘위기 안에 기회가 있다’라고 했다. 러시아 시베리아 횡단 열차 길에서 벗어나 중앙아시아라는 실크로드로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K-POP, 한국어 교육 등 한류에 관심이 매우 높은 카자흐스탄과 네트워크 발굴과 육로를 통과해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까지 갈 수 있는 대장정의 루트는 셀 수도 없을 만큼 세계지도를 구글링하고 고쳐 쓰고, 함께 고민하고 소통한 부산시 신 외교팀, 우리 팀의 결과물이다.

‘네트워크’란 실질적인 성과를 위해서는 대장정 사업은 매우 중요했고 그 실현을 위한 이론적 지지를 위해 상반기에는 유라시아 도시 포럼, 유라시아 아카데미 등의 주제와 관계자도 중앙아시아에 집중했다.

부산-알마티 우호 협력 도시를 체결하고 부산경제진흥원과 부산외대의 협력으로 경제 분야, 인재 육성 및 교육 분야 등에서 네트워크 구축과 경제적 효과가 나타났다.

물론 현지에서 몸과 마음으로 2030 부산 월드 엑스포 유치 홍보에 에너지를 쏟아준 우리 부산의 대학생들의 역할은 말로 다 할 수가 없다.

2022년 추석 연휴는 보름달도 송편도 가족도 잇은 채 부산 시내를 동분서주한 명절이었다.

▼ 사진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6331165>



9월 13일 부산역을 출발해 9월 21일에 우린 정말 파리에 도착했다.

파리 행사에서는 부산문화재단이 조선통신사 유네스코 등재 5주년을 기념해 콘텐츠를 보태주었고, 부산의 포장마차 콘셉트 먹거리, 공연단, 홍보단 대학생들 활약으로 ‘부산데이’는 주프랑스 한국대사관 관계자들도 놀랄 정도로 성공리에 마무리되었다. 그 결과는 150여 BIE 회원국 대표가 주재하는 파리에서 2030 부산 월드 엑스포 유치에 대한 갈망이 충분히 전달되었다. 엑스포 유치를 위해 발로 뛰는 주프랑스 한국대사관과 한국문화원 관계자들 도움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단장으로 기꺼이 깃발을 들어주신 안성민 부산시의회 의장님과 부단장으로 스텝들을 항상 보살펴주신 박희용 행정문화위원회 의원님 덕분에 13박 15일이 든든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 인사를 드린다. 긴 여정 노심초사하신 이치우 사무차장님과 묵묵히 잘 따라주고 고생한 우리 팀원에게도 고마움을 전한다.

예전에 참가하신 분이 먼 길 떠나는 내게 인사를 주셨다. “긴 여정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과의 관계, 안전입니다.” 그 말이 계속 기억에 남는다.

위기와 함께 기회가 찾아온 2022 유라시아 시민대장정



성혜진

부산국제교류재단
유라시아협력센터 선임

2021년 10월 부산국제교류재단에 부임한 후 첫 공무국외여행으로 12박 14일의 일정으로 유라시아 시민대장정의 사전답사를 부산시와 함께 진행했는데, 재단에서는 코로나로 인해 해외 교류사업이 중지되거나 비대면 사업으로 진행하던 와중에 재개된 해외 교류사업이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이전에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출발하던 경로를 변경하여 부산에서 출발하여 카자흐스탄 알마티,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 우즈베키스탄의 타슈켄트를 지나 프랑스 파리까지의 여정을 사전에 답사하며 위험 사항은 없는지, 현지 기관의 협조 요청 등을 통해 9월에 있을 본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점검하기 위함이었다. 출발할 때까지만 해도 현지에서의 코로나와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 유행병의 위협에 과연 행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으나, 실제로 거점도시의 각 해외공관 및 지역 관계자를 만나서 협조를 구하고 행사 진행과 관련한 협의를 해 나가며 걱정들을 하나씩 하나씩 없애 나갈 수가 있었다.

추석 연휴 뒤 바로 있을 9월 13일 출정식을 앞두고 9월 3일부터 한국 귀국자 대상 코로나 방역 조치가 해제되고 대장정 단원들은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안성민 부산시의회 의장님을 단장으로, 박희용 행정문화위원회 의원님을 부단장으로 하여, 22명의 단원은 부산역에서 박형준 시장님께서 참석한 출정식을 시작으로 13박 15일간의 대장정을 힘차게 출발하였다.



카자흐스탄 알마티에 도착하자 알마티시청 고위관계자의 열렬한 환송식을 시작으로 현지에서 대장정을 시작하였다. 대장정 2일 차엔 중앙아시아 도시교류로는 처음으로 부산시-알마티시 우호 협력 도시를 체결하였다. 올해 부산은 카자흐스탄과 많은 인연이 있었는데, 한국-중앙아 수교 30주년을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와 더불어 5월에는 부산에 카자흐스탄 총영사관이 개관하였다. 총영사관 개관과 함께 우리 유라시아협력센터에서 카자흐스탄 영화제를 개최하는 등, 뜻깊은 행사를 실시하였다. 그 외에도 중앙아시아 3개국 대학교에서의 대학생 교류와 부산외국어대학교와의 MOU 체결로 부산과 중앙아시아와의 체감상의 거리가 한결 가까워지는 느낌을 받았다. 또한 부산시의회와 비슈케크 시의회를 방문해 부산-비슈케크 시의회 협력 활성화 방안과 사절단 방문 교류 등의 실질적인 교류방안에 관해서도 협의를 이어나갔다.

올해 유라시아 시민대장정의 표이기도 하며 부산시의 최대 과제인 '2030 부산 월드 엑스포 유치'를 목표로 방문하는 도시의 기관과 사람들에게 '2030 월드 엑스포 부산' 유치를 위한 협조와 지지를 위해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였다. 특히 대장정의 피날레 행사인 '부산데이 인 파리' 행사는 프랑스 한국문화원에서 현지의 한류 인플루언서 등 약 130명이 참석해 유라시아 시민대장정 영상과 2030 부산 월드 엑스포 홍보영상, 그리고 부산 출신의 국악 공연의 행사를 진행하였고 이후 '오이소 부산 포차'로 진행된 만찬에서는 부산을 대표하는 씨앗호떡과 부산어묵, 한식 뷔페로 차려져 부산이라는 도시의 매력을 파리시민들에게 알리는 것과 더불어 '2030 월드 엑스포'가 부산에 유치되어야 함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파리에서의 행사를 끝으로 15일간의 유라시아 시민대장정을 마치고 온 지 2개월이 더 지난 지금, 아직도 대장정 단원들과의 인연을 이어나가고 있으며,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아있다.

마지막으로 대장정 전 일정 동안 대원들을 잘 이끌어주신 안성민 부산시의장님을 비롯해 박희용 의원님, 그리고 함께 한 모든 대원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 드린다.



유라시아 대륙의 심장 중앙아시아에서 2030 부산엑스포를 외치다!



손 희 승
부산국제교류재단
유라시아협력센터 선임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러시아, 중국, 몽골, 카자흐스탄, 폴란드, 독일 등 6개국 20여개 도시를 방문하여 다양한 교류행사를 통해 '유라시아 대륙 관문도시' 부산을 현지에 널리 홍보했던 부산시 대표 공공외교 행사인 유라시아 시민대장정이 코로나 사태 이후 3년만에 재개되었다.

오랜만에 진행되는 대장정 행사인 만큼 어느 곳을 방문할지 루트선정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루트선정의 최고 우선순위는 2030 부산엑스포 유치 홍보였고 우리 재단과 부산시는 오랜 고민 끝에 중앙아시아 3개국(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과 유럽의 엑스포 개최의 중심지인 벨기에, 프랑스로 최종 선정이 되었다.

특히 중앙아시아 3개국은 부산의 강력한 경쟁상대인 러시아 모스크바의 유치신청 철회로 부산이 전략적으로 무조건 신경 써야 될 지역이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올해가 한국-중앙아시아 국가 수교 30주년이 되는 해인지라 중앙아시아로 경로 선정은 운명과도 같은 것이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사태로 급등한 항공경비, 여전히 도사리고 있는 코로나 확산의 위협, 대장정 예산의 삭감 등 코로나 이후 오랜만에 재개되는 대장정이었지만 주어진 상황이나 여건이 썩 좋지만은 않았다. 그렇지만 불가능이란 없다! 불가능을 ‘째가능’(완전히 가능하다는 뜻의 신조어)으로 만드는 게 부산시민의 피같은 세금을 녹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의 임무 아니겠는가.



상반기부터 열심히 준비하여 7월에 중앙아시아 3개국으로 사전답사를 떠나게 되었다. 답사기간 동안 현지 한국 대사관, 시청, 대학교, 문화원 등 많은 기관들을 방문하였는데 다들 우리 사절단 일행을 크게 환대해주고 적극 돕겠다고 해주어 큰 힘이 되었다. 특히 이번에 부산과 중앙아시아 지역 최초로 우호협력도시를 체결한 알마티시에서는 우리 답사단을 너무 융숭하게 대접해주어 황송할 지경이었다.

답사를 다녀오고 준비기간이 2달도 채 안되었지만 현지 정부, 대사관, 대학교 등 관계자들은 하계 휴가기간임에도 물심양면으로 대장정 행사의 준비를 위해 애써주었고, 특히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 국립대학교에서는 엑스포의 유치열기를 비슈케크 전역에 알리겠다고 하며 우리의 기획안보다 훨씬 큰 규모로 행사를 준비해주어 참가자들에게 많은 감동을 선사해주었다.

본업이 바쁘지만 짬을 내어 준비해준 수 많은 현지의 관계자들 덕분에 9월에 진행된 중앙아시아 대장정 행사들은 모두 성공리에 개최되었고, 중앙아시아 지역 내 2030 부산 엑스포 유치 홍보에 우리 대장정이 많은 부분 기여하게 된 거 같아 보람차다.

중앙아시아 3개국을 방문하고 현지인들과 교류하며 느낀 점은 확실히 같은 동양문화권인지라 그런지 우리처럼 정이 많았고 무엇보다 한국과 부산에 대한 그들의 애정이 그들의 가족, 친구, 연인에게 보내는 것만큼이나 진심처럼 느껴졌다.

중앙아시아 3개국을 방문하고 현지인들과 교류하며 느낀 점은 확실히 같은 동양문화권인지라 그런지 우리처럼 정이 많았고 무엇보다 한국과 부산에 대한 그들의 애정이 그들의 가족, 친구, 연인에게 보내는 것만큼이나 진심처럼 느껴졌다.

아직 젊은 인구들이 국가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중앙아시아 지역과의 경제, 문화교류는 노인과 바다를 향해 나아가는 부산의 교류역사에 새로운 이정표 내지 블루오션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올해 대장정 방문을 기점으로 중앙아시아 지역과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한류스타급의 대학생 엑스포 홍보단의 홍보활동



조 숙 은
(사)2030부산월드엑스포
포범시민유치위원회
홍보팀장

작년부터 추진되어온 2030 부산월드엑스포 범시민유치위원회의 대학생 캠퍼스 홍보단 활동의 마지막 행사였던 유라시아 시민대장정 대학생 교류회!

우선 함께한 분들의 모습이 떠오르고 감사한 마음 가득합니다. 지역 대학생들의 자발적인 엑스포 홍보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인 '2030 부산 월드 엑스포 대학생 캠퍼스 홍보단은 11개 대학, 16개 팀의 캠퍼스에서 이루어졌고 이번 유라시아 시민대장정에 참여하게 된 학생들은 이들 중 심사를 거쳐 우수팀들에서 선정된 총 9명의 대학생 엑스포 홍보단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참가자들은 영상, 레크레이션, ppt 발표팀으로 팀워크를 구성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출발 전부터 연습, 또 연습을 거듭하여 마치 한류스타 같은 무대를 연출하게 되었고 이는 가는 곳마다 열광적인 호응을 받았습니다. 한국을 사랑하고 한류를 유행으로 여기는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파리 등 방문국 대학생 친구들에게 우리 엑스포 대학생 홍보단은 같은 MZ세대로서 다정한 부산의 이미지를 전달하고 2030 부산 월드 엑스포 유치에 대한 공감대와 뜨거운 응원을 얻어내는데 최고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국경을 넘을 때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던 일들, 현장에서 일어난 많은 상황을 극복하며 서로 배려하고 챙기며 부산과 2030 부산 월드 엑스포 홍보를 위해 프로그램을 완성해 나간 학생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유라시아 시민대장정을 기획하신 부산시와 학부모같이 우리를 챙겨주시던 단장님, 부단장님, 학생들의 교류회 활동에 함께하며 글과 영상으로 과정을 담아주신 부산일보 기자님들과 많은 현장의 어려움에도 사전 준비와 끝까지 안전한 대장정을 마무리하도록 도와주신 부산국제교류재단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운영진 후기



정 명 속
부산외국어대학교
국제교류처장

나는 올해 유라시아원정대에 대학 기관 대표로 참가하여 중앙아시아 지역 대학과의 교류협력 확대를 위한 활동을 수행하였다. 중앙아시아 3개국에서 4개 대학을 방문하여 대학생 대원들이 학생교류를 하는 동안 우리는 대학 총장, 국제교류처장, 한국(어)학과장을 만나 국제도시 부산의 위상과 우리 대학의 교육국제화 역량을 소개하고 대학 간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 중 3개 대학과는 신규 교류협정을 체결하고, 기존 자매대학과는 공동교육과정 운영에 대해 합의하는 큰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또한 알마티, 비쉬케크, 타슈켄트의 한국교육원과 현지 고등학교를 3곳을 방문하여 중앙아시아 지역 고교생의 한국어 학습 현장을 살펴보고 중앙아시아 지역 대학뿐만 아니라 중등학교와의 교육협력 방안을 협의하였다. 개인적으로는 한국어교육학을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중앙아시아 지역 학생들의 한국어 학습에 대한 열정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듯하고 가슴 벅찬 경험을 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먼저 카자흐스탄에서는 우리 대학의 자매대학인 카자흐국제관계 세계언어대학교(아블라이한 대학교)를 방문하여 양교의 협력 관계의 질적 전환을 위한 논의를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양교의 공동교육과정 운영과 방학 기간을 이용한 학생 교류 프로그램에 대해 협의하였다. 한국어학과 교수님들과의 따뜻한 점심 식사 시간에 한국어학과 설립에서부터 현재의 학과로 성장하기까지의 역사를 들으면서 해외 한국학자들의 노력과 열정에 다시 한번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날 오후에 마침 알마티 한국교육원에서 한국유학박람회 개최가 되어서 우리는 현장에서 한국 유학설명회를 진행하였다. 설명회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앉을 자리가 부족해 뒤에 서서 듣는 사람에서부터 문밖에 서서 듣는 사람, 창밖에서 안을 들여다보는 사람까지 그야말로 문전성시를 이루었다. 설명회 이후에도 질문이 끊이지 않아 일일이 답변하느라 힘은 들었지만 보다 많은 카자흐스탄 학생들이 한국 유학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대학의 국제교류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더욱 분발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는 시간이었다.





키르기스스탄에서는 키르기스국립대와 비쉬케크국립대와, 우즈베키스탄에서는 동방대학과 신규 교류협정을 맺고 앞으로 교류를 해 나가기로 했다. 비쉬케크국립대의 경우 나의 대학원 제자 두 명이 한국어교수로 파견되어 근무한 곳이었고, 동방대학교의 경우도 한국어과 교수를 3개월 동안 내가 교육한 적이 있어 더욱 기쁘고 반가운 마음으로 협정을 체결하였다. 3개 대학과 신규 교류협정을 하면서 대학 간 협력, 도시 간 협력도 결국 사람이 출발점이 되는 것이고, 기관의 네트워크보다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의 네트워크가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결국 국제교류의 시작은 사람과 사람의 만남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우리 대학도, 부산시도 보다 많은 학생과 시민들이 왕래할 수 있는 교류의 장을 더 많이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유라시아원정대에 학생대원들과 함께 참여해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기회를 준 부산시와, 짧은 시간에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해 준 부산국제교류재단에 대한 감사함이 후기를 쓰는 내내 가슴에서 올라온다.



운영진 후기



김 성 실
부산외국어대학교
국제교류팀 직원

최근 대학 내 중앙아시아 국가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중앙아시아 출신 유학생 수가 급격히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이런 와중에 이번 2022 유라시아 시민 대장정에 대학 관계자도 참여할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곧바로 부산외국어대학교 국제교류처에서는 정명숙 국제교류처장과 국제교류팀에서 팀을 꾸려 중앙아 지역에 대한 선구안과 전문성을 갖추고자 대장정 단원으로 합류하였다.

중앙아 3개국 일정에 동행하며 카자흐스탄의 아블라이한 국립대학교(국제관계 세계언어대학교)와 키르기스스탄 국립대학교, 비슈케크 국립대학교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의 타슈켄트 동방대학교를 방문하여 양 대학 간 학생과 교수 간 교류, 공동 교육 과정 운영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국제교류재단의 도움으로 알마티 한국 교육원에서 주관한 한국 유학박람회에 참가하여 부산외국어대학교 신·편입 입학설명회를 진행하였다. 설명회가 열린 세미나실은 학생들로 꽉 찼으며, 모두 진지한 표정으로 설명회를 경청하고 질문하는 열정적인 학생들을 보며 카자흐스탄 학생들의 한국 유학에 대한 높은 관심을 느낄 수 있었고 동시에 학생들의 수요를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방문 국가별로 느낀 점을 돌이켜보면 카자흐스탄 알마티는 발전된 계획도시 같았으며 중앙아시아 국가의 저력을 느낄 수 있는 곳이었다. 키르기스스탄은 자연환경이 정말 아름다웠으며, 비슈케크 국립대학교의 웅장하고 고풍스러운 건축양식에 저는 타임머신을 타고 고대 그리스 시대로 돌아간 듯하였다.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는 개인적으로 가장 기대를 많이 한 곳이었다. 타슈켄트에 도착하자마자 러시아풍과 동양풍이 혼재된 듯한 독특한 분위기가 나를 한 번에 사로잡았다.

3개국이 비슷할 것 같지만 실제로 가보니 국가마다 특징이 확연히 다르고 외모와 언어 등 모든 것에서 구분이 되어 너무나도 흥미로웠다. 이렇게 몸소 체득한 견문은 우리 대학 재학 중인 중앙아 국가



학생들과 소통하고 학생들의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유라시아 시민대장정을 통하여 우리 부산외국어대학교는 본교 홍보 및 부산 유학 정보 전달을 목표로 중앙아시아 3개국 일정을 잘 마무리하고 귀국했다. 중앙아 3개국 대학 관계자들과 교류하며 소중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었으며 키르기스국립대와 비슈케크 국립대학교 그리고 타슈켄트 동방대학교와 신규 협정의 성과도 달성하였다. 이번 교류를 계기로 부산외국어대학교는 본교 대학 전형 GKS 장학생 선발에 유라시아 대장정 기간에 교류를 맺은 대학교 출신 학생들을 우선으로 추천하기로 하였다. 또한 중앙아시아 3개국 일정 동안 보고 느끼며 키운 국가 이해도를 바탕으로 중앙아 국가 유학생 유치 전략을 기획하고 추진할 것이다.

대학 간 교류 일정을 기획해 주셔서 다시 한번 국제교류재단과 부산시청에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다. 특히 대장정 일정 동안 그리고 일정 후에도 세심하게 정명숙 처장님과 나를 비롯해 대원들을 알뜰살뜰 챙겨주시는 국제교류재단 직원들의 배려에 크게 감동하였다. 이렇게 모두의 진심과 노력이 다한 대장정의 마무리가 부산과 중앙아시아 3개국 대학 간 교류를 도모하고 이것이 부산지역의 대학에 관한 관심으로 이어져 우수 유학생 유치로 이어지길 기대해 본다.



운영진 후기



손혜림

부산일보 사회부 기자

2022 유라시아 시민대장정은 고되다는 시베리아 횡단 열차 대신 항공편을 이용한 만큼, 단원들이 부산에 가지고 돌아와야 할 숙제들이 있었다. 유라시아에 부산과 부산엑스포를 알리는 것.

사실 나는 부산역에서 대원들과 KTX 열차에 몸을 싣는 순간까지도 부산 엑스포 비관론자였다. 더 이상 부산을 한국 제2의 도시라 칭하기엔 민망했고, 사우디가 내건 휘황찬란한 미래 도시 모습을 보면 산복도로를 낀 북항 재개발 부지는 그저 전근대적인 공간 같아 부끄러워졌기 때문이다.

부산에서 엑스포를 개최하지 않더라도 유무형의 소득을 얻는다는 일명 '젓잘싸' 논리가 우세해지는 가운데, 엑스포 비관론자인 나는 대장정에 합류해 15일간 단원들의 활동을 지켜보고 기록했다.

여정에서 타국의 아름다운 경치보다 내 눈에 들어온 것은 부산을 애정하는 대원들(특히 대학생 대원들)의 모습이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 덕에 부산이 정말 엑스포 개최지가 될 수도 있겠다는 환상도 심어졌다.

이름도 생소한 국가의 수도에서, 한국을 공부하지만, 부산은 모르는 외국인들을 상대로 '부산에 유치해'를 외치던 대원들의 모습. 시도 때도 없이 바뀌는 현지 사정에도 미소를 지어 보이던 모습이 머릿속에 잔상처럼 남아있다.





대부분 이번 대장정의 피날레를 파리 부산데일로 꼽는다. 그러나 나는 중앙아시아 3개국 대학에서 한국어학과 학생들을 상대로 부산을 홍보한 교류 행사도 파리 부산데이에 못지않았다고 생각한다. 10대 후반~20대 초반 나이에 불과한 현지 학생들이 수십 년 뒤 한국의 국제 위상에 어떤 영향력을 발휘할지 생각해보면, 묵직한 잠재력이 느껴진다.

귀국 약 2개월 지난 지금, 파리 센강에는 부산엑스포 홍보를 위해 대형 부기 인형이 떠 있다고 한다. 우리가 만나고 온 유라시아인들의 머릿속에도 아직 부기가, 또는 대장정이 전한 부산과 부산엑스포의 열망이 떠오른다면, 대장정의 여정은 비로소 매듭지어질 것이다.

운영진 후기



정수원
부산일보
디지털미디어부
선임PD

“가슴 뜨거운 순간들을 담을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이번 유라시아 시민대장정에서 영상으로 대장정의 과정을 기록하기 위해 대장정 대원으로 함께 여정에 올랐다. 올해의 시민대장정은 특별했다. 코로나로 인해 2년 만에 재개되었고, 2030 엑스포가 부산에 유치될 수 있도록 홍보하는 ‘민간외교 사절단’의 역할도 맡았기 때문이다. 나는 이러한 중요한 순간들을 담아야 하는 역할이었기 때문에 약간의 설렘과 부담감을 가지고 13박 15일간의 이 여정에 올랐다.

알마티, 비슈케크, 타슈켄트, 파리, 브뤼셀 이 5개국을 이동하면서 참 많은 일이 있었다. 알마티와 비슈케크 국경을 이동할 때 공항에서 촬영본을 빼앗기기도 하고 아름다운 순간들을 더 담고 싶어서 달리기도 했다. ‘BUSAN DAY IN PARIS’ 행사에서 영상을 상영하기 위해 비행기 안에서 그리고 일정을 끝낸 뒤 늦은 시간까지 편집하기도 했다. 숙소에 들어가면 어떻게 편집할까 걱정이 되기도 했지만, 막상 편집을 시작하면 촬영본 속 대원들의 멋진 모습과 밝은 모습들은 피로감을 잊을 만하였다.





대원들은 항상 밝은 모습으로 행사에 임했고 열정적으로 행동하였으며 서로 배려해 주었다. 그래서 나 또한 너무 즐겁게 촬영할 수 있었다. 때로는 멀리서 그들을 바라봤고 때로는 가까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앞모습에는 밝음이 보였고 뒷모습에서는 열정을 느꼈다.

멋진 동료들과 함께했기에 일정이 모두 끝나고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후유증'이 생각보다 컸다. 물론 시차 적응 때문인 것도 있었겠지만 힘든 순간을 으싸 으싸 하며 함께 헤쳐 나갔고 시끌시끌했는데 막상 없으니까 아쉽고 그리웠다. 그래서 한동안 밤늦게까지 휴대전화 사진첩을 뒤적뒤적 보며 그리움을 달랬고 잠을 설쳤던 것 같다.

13박 15일 동안의 '우리들의 이야기'가 2030 엑스포가 부산에 유치되는 데 도움이 되면 좋겠고 함께 했던 동료들이 낙오자 없이 일정을 함께 마무리할 수 있어서 자랑스럽다.

부산외국어대학교 사업 개요 및 주요성과

기관명	부산외국어대학교
기관소개	세계를 향한 도전 정신과 창의력, 그리고 도덕적 품성을 갖춘 국제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특성화된 대학입니다. 국제화 선도대학, 권역별 우수교육 중심대학 및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인증 대학으로 선정되었으며 현재 48개 학부 전공 과정, 26개 석·박사 과정 운영 중입니다.
사업기간	2022.09.14.(수) ~ 2022.09.20.(화)
방문장소	중앙아시아 3개국(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참가자명	국제교류처장 정명숙, 국제교류팀 직원 김성실

주요 실적 및 성과

가. 카자흐 아블라이한 국제관계 세계언어대학교 방문

- 카자흐국제관계 세계언어대학교와 부산외국어대학교 간 학생 및 교수 교류협력 건 논의
- 양 대학 해외공동교육과정 개설 및 양교 여름 방학 여학 단기 연수 파견 추진 건에 대한 협의
- 카자흐국제관계 세계언어대학교 관계자 및 대학생 교류를 통한 해외 네트워크 구축
- 부산외국어대학교 홍보를 통한 유학생 유치 · 확대

나. 알마티한국교육원 한국 유학박람회 참여

- 2022 알마티 한국교육원 주관 유학박람회에 부산외국어대학교는 국내 대학 중 유일하게 오프라인 현장 유학설명회 진행

다. 키르기스 국립대학교 방문

- 키르기스 국립대학교와 부산외국어대학교 간 신규 협정 체결
- 협정 내용은 학생 교류 및 교수, 학술 교류에 대한 포괄적 협정
- 키르기스 국립대학교와 부산외국어대학교 간 학생 및 교수 교류협력 건 논의

라. 비슈케크 국립대학교 방문

- 비슈케크 국립대학교와 부산외국어대학교 간 신규 협정 체결
- 협정 내용은 학생 교류 및 교수, 학술 교류에 대한 포괄적 협정
- 비슈케크 국립대학교와 부산외국어대학교 간 학생 및 교수 교류협력 건 논의

라. 타슈켄트 동방대학교 방문

- 타슈켄트 동방대학교와 부산외국어대학교 간 신규 협정 체결
- 협정 내용은 학생 교류 및 교수, 학술 교류에 대한 포괄적 협정
- 타슈켄트 동방대학 관계자들과 만남을 통한 해외 네트워크 구축

부산외국어대학교 사업 개요 및 주요성과



부산문화재단 사업 개요 및 주요성과

기 관 명 (재)부산문화재단

기 관 소 개 부산문화재단은 문예창작, 학예진흥의 지원을 통하여 지역 문화예술을 활성화하고 지역문화의 정체성 확립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 문화창작기반을 조성하고 시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여 부산을 창의와 품격을 갖춘 세계적인 문화도시로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 업 기 간 2022.09. 19.(월) ~ 09. 26.(일)

방 문 장 소 프랑스(파리), 벨기에(브뤼셀)

참 가 자 명 이미연(대표이사), 서상호(생활문화본부장), 조정윤(정책연구센터장)
김현승(문화유산팀장), 임재환(팀원), 김효정(팀원)

주 요 내 용 조선통신사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5주년을 맞아 조선통신사의 가치 확산 및 역사문화 콘텐츠 활용을 통한 2030부산 엑스포 유치 홍보활동에 기여

- 유네스코 등 기관방문 통한 '문화교류를 통한 평화구축' 사례 전파
- 평화의 여정 조선통신사 전시(영상, 기록물 영인본, 작품 등)
- 거리 퍼포먼스, 체험행사
- 유라시아 시민대장정 연계 프로그램 '부산데이 리셉션'
- 2030 부산월드엑스포 유치 홍보활동 지원

주요 실적 및 성과

① 유네스코 사무국 및 파리중심 문화관련 기관방문으로 '문화교류를 통한 평화구축' 사례 적극 홍보

방문기관: 유네스코 본부, EU 교육문화총국(DG EAC), 파리시청 및 파리 지역 연구원, 주벨기에한국문화원, 주프랑스한국대사관

② 주프랑스한국문화원을 거점으로 전시행사 추진, 현지 주요 지점에서 거리 퍼포먼스를 통한 언론 노출로 홍보 효과 극대화

조선통신사 평화의 여정 전시	조선통신사 납시오	부산데이 리셉션
조선통신사 세계기록유산 등재 기록물 영인본 전시 ① 조선통신사 기록물 영인본 : 송하호도, 소동 ② 조선통신사 관련 자개 공예 1점, 수목화 3점 전시 ③ 조선통신사 관련 유네스코 등재 소개 영상 2편 상영 ④ <여정, 기억을 잇다> 디지털 콘텐츠(실감콘텐츠) 영상 상영	① Peace & Piece - 300명 규모의 K-POP 랜덤플레이댄스 : 유튜브 고퇴경 '퇴경아 약먹자' 채널 연계 프로그램 : 2030 부산월드엑스포 유치기원 메시지 발신 ② 평화 통신사의 길 - 퍼포먼스를 통해 2030 부산월드엑스포 유치기원 홍보와 문화사절단의 홍보 역할 수행	※ 부산국제교류재단 협업 유라시아 시민대장정 연계 프로그램운영 ① 조선통신사 평화의 여정 전시 오픈닝 ② 조선통신사 콘텐츠를 활용 2030 부산월드엑스포 홍보 및 교류 ③ 조선통신사 의상 체험 및 포토존 운영

부산문화재단 사업 개요 및 주요성과



부산경제진흥원 사업 개요 및 주요성과

기관명 부산경제진흥원

기관 소개 부산의 소상공인·중소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와 중소기업청이 설립한 비영리재단법인으로서 부산소재 기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기업의 경영여건 개선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 2022년 8월 ~ 9월

방문장소 카자흐스탄 알마티

참가자명 김재갑 단장, 김지윤 대리

주요내용 지역기업 11개사와 현지 바이어와의 비즈니스 미팅을 위한 현지 상담회 개최

주요실적 및 성과 ① 지역기업 11개사, 상담 70건 진행, 계약추진성과 3,929천USD

② 부산경제진흥원-알마티시 기업투자국 MOU체결

2022 중앙아시아 실크로드 시장개척단 참고자료

- 사업개요**
- 사업명 : 2022 중앙아시아 실크로드 시장개척단
 - 파견기간 : 2022. 9. 13.(화) ~ 9. 16.(금), 2박 4일
 - 파견지역 : 카자흐스탄 알마티
 - 참가품목 : 종합품목(산업재+소비재)
 - 파견규모 : 11개사
 - 주최/주관 : 부산광역시/부산경제진흥원

- 추진사항**
- 1:1 비즈니스 상담회
 - 일시 : 9. 14.(수), 10:00~17:00
 - 장소 : 인터컨티넨탈 알마티 호텔 아스타나홀
 - 개최규모 : 지역기업 11개사, 바이어 65개사

- 부산경제진흥원 - 알마티시 기업투자국 MOU체결
 - 일시 : 9. 14.(수), 16:00~17:00
 - 장소 : Caspian University(알마티시 임시공관)
 - 체결내용 : 양 지역간 경제, 무역 관련 협력을 위한 상호지원 내용

담당자 소감



김지윤
부산경제진흥원
대리

유라시아의 중간 거점인 중앙아시아로의 시민대장정 파견은 뜻 깊은 행사였다고 생각한다. 특히 올해는 한-중앙아 수교 30주년으로 그 의미가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자원이 풍부하지만 제조업 발달이 더딘 중앙아시아, 제조업은 발달되어있지만 자원이 부족한 대한민국, 양 국가(지역)은 상호보완적이라 볼 수 있다. 그렇기에 이러한 행사를 통해 교류, 협력을 이어간다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을거라 생각한다.

부산경제진흥원 사업 개요 및 주요성과



05

언론보도자료

BUSAN부산일보.com

"평화 향한 파트너십" 부산-중앙아시아 '2022 유라시아 도시 포럼' 열려

손혜림 기자 hyerimsn@busan.com

입력: 2022-06-23 16:13:36 수정: 2022-06-23 16:21:04



부산국제교류재단은 23일 오후 2시 아스티호텔 부산역 그랜드볼룸에서 '2022 유라시아 도시포럼'을 개최했다. 부산국제교류재단 제공

부산에서 부산시와 중앙아시아 4개국 인사가 모여 평화를 위한 지속 가능한 교류와 협력을 논의하는 포럼이 열렸다.

부산국제교류재단은 23일 오후 2시 부산 동구 아스티호텔 부산역 그랜드볼룸에서 '2022 유라시아 도시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은 '사람과 평화를 위한 파트너십'을 주제로, 부산과 중앙아시아 도시 네트워크 구축과 실질적 교류 방안에 대한 토론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날 포럼은 오는 9월 2년 만에 재개되는 유라시아 시민대장정에 앞서 협력을 강화한다는 취지도 담고 있다. 올해 유라시아 시민대장정은 13박 15일 여정으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중앙아시아 3개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포럼에는 바쿰 뉘벤베예프 주한 카자흐스탄 대사, 사이도브 조키르 주한 우즈베키스탄 대사관 공관 차석, 이사베코프 마나스벡 한-중앙아협력포럼사무국 키르기스스탄 레지던트 펠로, 이양구 전 우크라이나 대사 등 중앙아시아 4개국 관계자와 부산시와 부산국제교류재단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날 오후 2시 40분 시작된 '부산-중앙아시아 도시 네트워크 구축 방안' 세션에서는 바쿰 대사, 사이도브 공관차석, 이사베코프 레지던트 펠로가 발표를 진행하고, 토론을 이어나갔다. 이어 오후 4시 15분 '부산-중앙아시아 도시 간 실질적 교류 방향 제안' 세션에서는 이양구 전 대사, 엄구호 한양대 러시아학과 교수 겸 아태지역연구센터 소장, 손영훈 한국외대 중앙아시아학과 교수 등 각각 발표를 진행했다. 이어 고재남 유라시아 정책연구원 원장, 배수한 동서대 민석교양대 교수, 이재혁 부산외대 러시아학과 교수가 실질적인 협력 방안에 대한 토론을 했다.

한편 2021년 11월 기준 부산의 중앙아시아 국적 외국인인 2368명으로(우즈베키스탄 1683명, 카자흐스탄 530명, 키르기스스탄 116명 등), 지역 전체 외국인인 약 4.3%를 차지한다.

부산일보 기사



한-카자흐 수교 30주년...우호협력도시 체결하고 경제 진출로 확대 기대

손혜림 기자 hyeirims@busan.com

입력 : 2022-09-15 16:55:26



부산시는 현지시간 14일 오후 4시께 카자흐스탄 알마티시 카스피안 대학교에서 알마티시와 우호협력도시 협정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알마티시 알리셰르 압디카디로프 부시장, 부산시 이성권 경제부시장, 정수원 PD bluesyca2@

부산시가 한-카자흐 수교 30주년을 맞아 중앙아시아 금융 중심지인 카자흐스탄 알마티시와 우호협력 관계를 맺었다. 부산시의 경제적으로 협력하겠다는 협약도 체결해, 우리 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도 확대될 전망이다.

부산시는 현지시간 14일 오후 4시께 카자흐스탄 알마티시 카스피안 대학교에서 알마티시와 우호협력도시 협정을 체결했다. 우호협력도시시는 자매도시와 달리 체결 시 시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지만, 공식적인 교류협력이 이루어지는 도시를 의미한다.

이날 체결식은 지난 13일 부산을 출발한 '2022 유라시아 시민대장정'의 첫 여정으로 카자흐스탄을 방문한 데 따라 마련됐다. 한국과 카자흐스탄 수교 30주년을 기념하면서, 부산지역의 중앙아시아 지역 실크로드 개척을 위한 외교적 기반을 다지기 위함이다.

부산시 이성권 경제부시장은 "부산과 카자흐스탄은 한마디로 '형제 도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부산도 영화 중심의 도시이고, 알마티도 문화·예술·영상 분야에서 뛰어난 실력을 갖춘 도시인 만큼 서로 상호보완적 관계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알마티시 알리셰르 압디카디로프 부시장은 "올해 우리는 수교 30주년을 맞이했고, 이번 유라시아 시민대장정 첫 방문 도시가 알마티라는 점은 매우 상징적이다"며 "이번 우호협력도시 협정 체결을 통해 앞으로 더 많은 교류가 오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카자흐스탄 알마티시는 부산시가 우호협력 다리를 놓는 첫 번째 중앙아시아 도시다. 알마티시와 우호협력 관계를 맺음으로써 부산시는 총 7개국 12개 도시와 우호협력 관계에 놓이게 됐다.

2022 유라시아 시민대장정 단장을 맡은 부산시의회 안성민 의장은 "알마티와 부산은 실크로드가 아닌 골든로드로 이어질 것이다"며 "금은 인간이 만들 수 없는 물질이면서 변하지 않는다. 앞으로 양 도시 관계도 금처럼 변하지 않고 오래 지속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러시아 전쟁 영향으로 새로운 시장 물색에 나선 부산지역 기업이 중앙아시아에 진출할 '실크로드'도 확대될 전망이다.

이날 부산경제진흥원은 알마티시 기업투자국과 수출임투자정보공유기타 상업적 활동 분야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약속하는 업무 협약(MOU)을 맺었다. 또 선월드코리아, 한국해양바이오물리스터(주) 등 부산지역 기업 11곳으로 구성된 '실크로드 시장개척단'은 현지 바이어들을 상대로 수출 상담회를 진행했다.

BUSAN.com

'댄스 틱톡'으로 전 세계 MZ 공략... 부산엑스포 유치 분위기 띄웠다

[2030 부산에서 만나는 세계] 2022 유라시아 시민대장정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방문 한국어 전공 현지 학생들 대상 교류행사 통해 엑스포 홍보 나서 부산, 알마티시의 우호협력 체결 중앙아시아 '부산 지지' 포석 잡아

손혜림 기자 hyerims@busan.com

입력 : 2022-09-18 19:30:46 수정 : 2022-09-18 22:27:49



지난 16일(현지 시간) 카자흐스탄 알마티시 국제관계세계언어대학에서 부산에서 출발한 유라시아 대장정 단원들과 이 대학 동양학과 한국어전공 학생들이 교류 행사를 갖고 있다. 정수원 PD blueskyia2@

부산에서 출발해 중앙아시아를 지나 유럽으로 향하는 민간 외교사절단인 '2022 유라시아 시민대장정'이 본격적인 유라시아 현지 2030부산세계박람회 홍보에 나섰다. 틱톡을 활용한 MZ세대 공략, K팝 공연, 도시 간 투자 업무협약 체결 등 다채로운 방식으로 엑스포 유치전이 이뤄지고 있다.

2022 유라시아 시민대장정은 여섯 6일 차에 접어든 현지시간 기준 18일 두 번째 방문 지역인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시에 체류하고 있다. 대학생 대원 9명은 이날 오전 9시에 19일로 예정된 키르기스스탄 국립대, 비슈케크 국립대 학생들과의 '부산엑스포' 주제 문화 교류에 나서기 전 리허설에 들어갔다.

한국에 관심이 많은 현지 한국어 전공 학생들을 상대로 부산월드엑스포를 알려 지역 내 부산엑스포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겠다는 전략이다.

현지 시간 지난 16일 첫 번째 방문 지역이었던 카자흐스탄 알마티시 아벨라이한 국제관계세계언어대학교(이하 국제대) 볼루홀에서 열린 교류행사에서는 국제대 한국어전공 학생 28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 도시 소개, 엑스포에 대한 발표, K팝 댄스 참가자랑 등이 이어졌다. 한국 드라마를 계기로 한국어를 배우게 됐다는 국제대 4학년 발누르 씨는 "한국어를 배운 지 4년째인데도 코로나 탓에 아직 한국에 가 보지 못했다"며 "8년 뒤 부산엑스포가 열릴 때까지 열심히 한국어를 공부해 부산을 꼭 찾아가고 싶다"고 말했다. 민간 외교사절단인 유라시아 시민대장정은 부산엑스포 홍보를 위한 민간 저변 확대에 가장 큰 의미를 두고 있다. 그동안 BIE(국제박람회기구) 회원국 고위 관계자를 중심으로 부산엑스포 유치전이 이뤄졌는데, 민간 차원 포섭을 통해 물밑 전략을 펼쳐야 한다는 시각에서다. 특히, 외국 국적이면서 한국어를 소화하는 이들을 겨냥하던 지역 내 부산엑스포 인식 확산에도 더 효과적인 것이라는 짧은 영상 플랫폼인 틱톡을 활용한 전 세계 MZ세대 공략에도 나섰다. 지난 14일 오전 11시에 시민대장정은 카자흐스탄 알마티시 틱톡 촬영 스튜디오 '콘텐츠 패브리카(Content Fabrica)'를 방문해 모두 5000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카자흐스탄 틱톡 인플루언서 크루 '빅 하우스(BIP House)' '올로 하우스(VOLO House)'와 부산엑스포 댄스를 촬영했다. 이들이 함께 춘 부산엑스포 댄스는 손으로 영어 'B'와 'A'를 그린 뒤 '비 유 에스 에이 엔 엑스포' 구령에 맞춰 손가락으로 숫자 4를 표시하는 춤으로, 6월부티(S)2030부산월드엑스포발시민유치위원회가 이 춤을 SNS에 공유하는 유치 기원 챌린지를 시작했다.

중앙아시아 금융의 꽃인 알마티시의 우호협력 관계를 맺어 부산시의 외교 저변을 넓히는 한편 부산엑스포 지지를 요청하기도 했다. 현지시간 지난 14일 오후 4시에 카스피안 대학교 6층에서 부산시 이성권 경제부시장은 알마티시 알리세르 압디카디르프 부시장을 만나 우호협력도시 협정을 체결했다. 또 부산경제진흥원과 알마티시 기업투자자 간 상호협력 업무협약(MOU) 체결도 이루어졌다.

압디카디르프 부시장은 "올해 우리는 수교 30주년을 맞이했고, 이번 유라시아 시민대장정 첫 방문 도시가 알마티라는 점은 매우 상징적이다"며 "우호협력도시 협정 체결을 통해 앞으로 더 많은 교류가 오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카자흐스탄 알마티시는 부산시가 우호협력도시 협정을 맺은 첫 중앙아시아 도시다. 한·카자흐스탄 수교 30주년을 기점으로 협력 관계가 강화되는 것은 물론, 우리 기업 해외 판로 개척도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또 중앙아시아에서 부산엑스포 지지를 확장하기 위한 포석이 될 것으로도 점쳐진다. 같은 날 오후 8시에 카자흐스탄 호텔에서 열린 친선의 밤에서 이 부시장은 "부산시는 2030 월드엑스포를 개최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알마티시와 부산시가 우호협력 관계를 맺은 만큼 부산시를 위해 엑스포 유치를 함께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당부했다.

유라시아 대장정은 19일 키르기스스탄 국립대, 비슈케크 국립대와 대학생 교류를 마친 뒤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시로 향한다. 이어 21일 프랑스 파리로 이동해 '부산 데이 in Paris'를 통해 BIE 회원국 고위 관계자와 현지 한류 인플루언서를 상대로 부산 음식, 표정마차 문화 홍보에 주력할 계획이다.

비슈케크(키르기스스탄)=손혜림 기자 hyerims@busan.com본석이나온다.

부산일보 기사



파리 한복판서 “부산에 유치해”... 한국 맛·문화 알렸다

[2030 부산에서 만나는 세계]

손혜림 기자 hyerims@busan.com

입력 : 2022-09-25 18:58:32



지난 23일 오후 6시 30분께(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주프랑스한국문화원(위쪽)에서 중앙아시아 국가 고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데이 인 파리' 행사가 열리고 있다. 정수원 PD bluesky2@

지난 23일 오후 6시 30분께(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주프랑스한국문화원(위쪽)에서 중앙아시아 국가 고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데이 인 파리' 행사가 열리고 있다. 정수원 PD bluesky2@

민간 외교사절단인 부산시 '2022 유라시아 대장정'이 국제박람회기구(BIE)가 있는 프랑스 파리를 부산의 맛과 한국의 문화로 수놓았다. 주프랑스한국문화원에서 열린 '부산데이 인 파리(in Paris)'에 참석한 BIE 회원국 대표 관계자, 유명 인물루언서 등 70여 명은 부산 음식을 맛보고 한국 음악을 들으며 부산엑스포의 가능성을 오감으로 확인했다.

“부산에 유치해!”

프랑스 현지시간 23일 오후 6시 30분께, 수십 명이 한목소리로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를 외치는 소리가 터져 나온 이곳은 부산이 아닌 프랑스 파리 주프랑스한국문화원 안들. 부산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부산데이 인 파리' 행사가 열린 이날, 안들에서 한식과 소주·막걸리 등 주류를 즐기던 사람들은 한마을으로 부산엑스포 유치를 응원했다. 이 행사엔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키르기스스탄 등 중앙아시아 국가 고위 관계자, 국내 대기업 관계자, 인물루언서 등 71명이 참가했다.

2022 유라시아 대장정, 프랑스서 진행 주프랑스한국문화원서 '부산데이' 행사 포장마차에 파견 등 20가지 한식 선보여 현지 학생과 교류 등 통해 유치 열기 전파

특히 참석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바로 부산의 맛. '오이소' '보이스' '사이소'라고 적힌 간판을 내건 포장마차 3대가 20가지 한식을 차려 놓은 채 손님들을 맞이했다. 동래파전, 부산어묵, 족발냉채 등 부산 음식은 그중에서도 베스트셀러였다. 동래파전을 최고의 한식으로 꼽은 메델 씨는 "나는 할랄 식단을 먹기 때문에 육고기를 섭취할 수 없는데, 동래파전에는 고기가 들어가지 않고 맛도 뛰어났다"며 "부모님께도 드리기 위해 주머니에 몇 조각 넣어 가야 할 것 같다"고 농담을 건넸다. 참석자들의 입은 물론, 눈과 귀에도 부산의 매력이 한가득 전달됐다. 아름다운 가야금 선율과 신나는 판소리가 어우러져 문화원 안들을 국악의 흥겨움으로 가득 채웠다. 붉은색 전통 통신사(조선시대 공식 외교사절단) 복장을 착용하고 갓을 머리에 얹어보던 피아미스 씨는 "한국 전통 복식은 처음입어 본다"며 "소매가 매우 커 당황스러웠지만, 그래도 정말 아름답다"며 웃음을 싣다듬었다.

프랑스 파리는 지난 13일 부산을 출발해 유라시아로 향한 2022 유라시아 시민대장정의 본부대다. 시민대장정은 파리에서 시대대학 한국학과 학생들과의 문화교류, K팝 팬들의 성지인 '킵 카페' 방문, 통신사 플래시몹 등 한국 문화와 부산의 역사적 자산을 알세워 엑스포 유치 열기를 전파했다.

약 보름간의 2022 유라시아 대장정을 이끈 안성민(부산시의회 의장) 단장은 통신사 '정사(총책임자)'의 복장을 입고 참석자들 앞에 나서며 부산엑스포 지지를 당부했다. 안 단장은 "부산은 그 어느 도시보다 자유, 평등, 박애를 실천하는 도시다"며 "프랑스의 위대한 정신을 함께 실천하는 부산이 2030년 엑스포를 유치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오후 8시께 대학생 단원들의 K팝 공연이 이어지며 분위기가 무르익자, 부산에 매료된 참석자들은 "부산에 유치해"를 연신 외쳤다. 부산의 문화적 역량이 파리 시내 한복판에서 부산엑스포 유치성원을 이끄는 기록체가 된 셈이다.

3년 전 방문 이후 부산을 사랑하게 됐다는 클로틸드 씨는 "내가 경험한 부산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수퍼 다이내믹한 도시'다"며 "해변이 있어 아름다운 부산에서 엑스포가 당연히 개최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노한 그날을 손꼽아 기다릴 것"이라며 눈을 반짝였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유대종 주프랑스 대한민국 대사는 "엑스포는 인류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혁신적인 발상을 공유하는 자리"라며 "우리 정부, 기업, 국가 전체와 시민 모두가 이 프로젝트에 관심을 가지고 단합하는 만큼,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한 여러분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언론보도 기사

연번	매체	보도일자	작성자	기사제목
1	국제신문	2022.08.05	장호정	2년 만에 재개 부산 유라시아 대장정 “올해는 엑스포다”
2	부산일보	2022.09.12	손혜림	“아시아 넘어 유럽으로”… 엑스포 염원 안고 유라시아 달린다
3	뉴시스	2022.09.13	백재현	‘유라시아 시민대장정’, 13박 15일간 민간외교사절단 출정
4	연합뉴스	2022.09.13	오수희	“엑스포 부산 유치 홍보”…유라시아 시민 대장정 출정
5	국민일보	2022.09.13	윤일선	“엑스포 유치 열기 전한다”…유라시아 시민대장정 출정
6	뉴스1	2022.09.13	박재오	‘유라시아 시민대장정’ 민간외교사절단 출정…2030엑스포 유치 홍보
7	파이낸셜뉴스	2022.09.13	노동균	“엑스포를 부산으로”… ‘유라시아 시민대장정’ 닷 올렸다
8	한국경제	2022.09.13	민건태	부산 유라시아 시민대장정 출정
9	노컷뉴스	2022.09.13	박중석	“2030세계박람회 부산에서” 유라시아 시민대장정 출정
10	머니투데이	2022.09.13	노수윤	‘부산에서 유라시아까지’ 엑스포 유치 대장정
11	경향신문	2022.09.13	권기정	2030엑스포 시민홍보단 ‘유라시아 대장정’
12	헤럴드경제	2022.09.13	윤정희	부산시민, ‘유라시아 시민대장정’ 민간외교사절단출정
13	파이낸셜뉴스	2022.09.13	노동균	“부산에서 유라시아로” 13박 15일 시민대장정 돌입
14	아이뉴스24	2022.09.13	박성현	부산시, 2030엑스포 유치 유라시아 시민대장정 출정
15	국제신문	2022.09.13	장호정	부산시민 55명 유라시아 대장정 돌입
16	YTN	2022.09.13	손재호	[부산] '2022 유라시아 시민 대장정' 출정... 엑스포 홍보
17	경향신문	2022.09.13	권기정	“2030엑스포 부산으로” 대학생-경제인 홍보단 유라시아 대장정 올라
18	프레시안	2022.09.13	박호경	부산 ‘유라시아 시민대장정’ 돌입.2030엑스포 홍보전 실시
19	MBN	2022.09.13	안진우	‘2030세계박람회’ 부산 유치 염원 안고 유라시아로 출정
20	KBS	2022.09.13	김아르내	“부산엑스포 유치” 유라시아 횡단 시민 대장정 막 열었다
21	BBSNEWS	2022.09.13	김상진	‘2022 유라시아 시민대장정’ 출정식열려
22	뉴스핌	2022.09.13	남동현	부산시, 유라시아 시민대장정 출정식…부산엑스포 유치 홍보
23	KBS	2022.09.13	김아르내	“부산엑스포 유치” 유라시아 횡단 시민 대장정 막 열었다
24	e대한경제	2022.09.13	임순택	부산시, 유라시아 시민대장정 출정…엑스포 유치 홍보
25	문화일보	2022.09.13	김기현	2030 부산엑스포 유치기원 유라시아 시민 대장정 출발
26	아시아투데이	2022.09.13	조영돌	부산시 ‘유라시아 시민대장정’, 13박 15일간 민간외교사절단 출정
27	국제뉴스	2022.09.13	조하연	유라시아 시민 대장정 출정…“엑스포 부산 유치 홍보”

언론보도 기사

연번	매체	보도일자	작성자	기사제목
28	뉴스핌	2022.09.13	남동현	안성민 부산시장 “15일간 유라시아 시민대장정…부산엑스포 홍보”
29	이뉴스투데이	2022.09.13	김재현	부산에서 유라시아로, ‘유라시아 시민대장정’ 민간외교 사절단출정식
30	CNB뉴스	2022.09.13	이선주	유라시아 시민대장정 출정… 2030부산엑스포 유치 홍보 총력
31	신아일보	2022.09.13	정현숙	부산시 ‘유라시아 시민대장정’, 13박 15일간 민간외교사절단 출정
32	스카이데일리	2022.09.13	김종창	부산 ‘유라시아 시민대장정’, 13박15일 민간외교사절단 출정
33	UPI뉴스	2022.09.13	최재호	부산시, 13박15일 ‘유라시아 시민대장정’ 민간외교사절단 출정식
34	LG헬로비전	2022.09.13	차선영	2022 유라시아 시민대장정 출정식… 2030부산세계박람회홍보나선다
35	디스커버리뉴스	2022.09.13	정기환	‘유라시아 시민대장정’, 13박 15일간 민간외교사절단 출정
36	부산MBC	2022.09.13	윤파란	“엑스포 유치 홍보” 유라시아 시민 대장정 출정
37	뉴스프리존	2022.09.13	최슬기	2030세계박람회 유라시아 민간외교사절단 출정
38	시민일보	2022.09.13	조병선	‘유라시아 시민대장정’, 13박 15일간 민간외교사절단 출정!
39	부산제일경제	2022.09.13	원동화	민간 외교 사절단 ‘유라시아 시민대장정’, 부산시 알리기 앞장
40	경남매일신문	2022.09.13	정석정	부산 유라시아 시민대장정 출정식 15일간 세계 주요 도시 방문 · 홍보
41	뉴스1	2022.09.13	김영훈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홍보를 위한 시민대장정단
42	부산일보	2022.09.13	김종진	[포토뉴스] 월드엑스포 홍보 임무 ‘유라시아 시민대장정’ 출정식
43	KNN	2022.09.13	이태훈	2030부산엑스포 홍보, 유라시아 시민대장정
44	불교공뉴스	2022.09.13	이경	부산에서 유라시아로, 2030세계박람회 부산에 유치해!
45	일요신문	2022.09.13	이혜림	[부산시] 차세대 인공지능 전문가 집중 육성 외
46	서울경제	2022.09.13	조원진	“부산엑스포 유치를”…민간 외교사절단 힘차게 떠났다
47	뉴스핌	2022.09.13	남동현	안성민 부산시장 “2030세계박람회 부산 유치 책임진다”
48	뉴스1	2022.09.13	김영훈	부산에서 출발해서 파리에서 만나요
49	천지일보	2022.09.13	윤선영	부산시, 유라시아 시민대장정 출정… 2030세계박람회 유치 ‘총력’
50	SR타임스	2022.09.13	김종섭	[지자체의 SR] 유라시아 시민 대장정, 13박 15일간 민간외교사절단 출정
51	스마트에프엔	2022.09.13	정대영	부산시, 유라시아 시민 대장정 출정… “부산엑스포 유치 홍보”
52	동아일보	2022.09.14	강성명	‘2030부산엑스포’ 유치 기원, 유라시아 시민 대장정 출정
53	MBN	2022.09.14	안진우	‘2030세계박람회’ 부산 유치 염원, ‘유라시아 시민대장정’ 출범
54	국민일보	2022.09.14	윤일선	“부산엑스포 유치 열기 전한다”… 유라시아 시민대장정 출정

언론보도 기사

연번	매체	보도일자	작성자	기사제목
55	SK브로드밴드	2022.09.14	-	[B tv 부산뉴스] 유라시아 시민대장정 출정식 '부산세계박람회 홍보'
56	세계일보	2022.09.14	오성택	"엑스포 유치 홍보"... 부산 시민 유라시아 대장정
57	MBN	2022.09.14	안진우	'2030세계박람회' 부산 유치 염원, '유라시아 시민대장정' 출범
58	경남일보	2022.09.14	손인준	2030세계박람회 부산 유치 위한 유라시아 시민대장정 출정식
59	KBS	2022.09.14	김아르내	부산엑스포 유치 위한 유라시아 횡단 시작
60	국제신문	2022.09.14	여주연	유라시아 시민대장정 2년 만에 재개
61	부산일보	2022.09.18	손혜림	'댄스 틱톡'으로 전 세계 MZ 공략... 부산엑스포 유치 분위기 띄웠다
62	뉴스핌	2022.09.21	박성진	부산시 '유라시아 시민대장정' 첫 성과...알마티시와 우호협력 협약
63	아시아경제	2022.09.21	이동국	"유라시아 시민 대장정 첫 성과, 북방 개척 나선다" 부산시, '카자흐스탄 알마티시'와 우호협력도시 체결
64	부산일보	2022.09.25	손혜림	파리 한복판서 "부산에 유치해"... 한국 맛·문화 알렸다
65	연합뉴스	2022.09.26	민영규	부산 유라시아 시민대장정, 파리 '부산데이'로 마무리
66	뉴스1	2022.09.26	박채오	'부산엑스포 알리미' 유라시아 시민대장정, 파리에 13박15일 일정 마무리
67	파이낸셜뉴스	2022.09.26	노동균	유럽에 엑스포 열망 알렸다... 시민대장정 피날레
68	국제신문	2022.09.26	장호정	2022 유라시아 시민대장정 파리에 피날레
69	아시아경제	2022.09.26	이동국	유라시아 시민대장정, '부산데이 인(in) 파리'로 대장정 막 내려!
70	한국경제	2022.09.26	민건태	부산, 파리에 엑스포 홍보... '유라시아 대장정' 마무리
71	뉴스핌	2022.09.26	남동현	안성민 유라시아 시민대장정 단장 "2030부산엑스포 유치 긍정적"
72	부산MBC	2022.09.26	윤파란	2022 유라시아 시민대장정 '부산데이'로 마무리
73	CNB뉴스	2022.09.26	이선주	부산시, 2022 유라시아 시민대장정 파리에 피날레
74	글로벌경제	2022.09.26	김태현	민간외교 사절단 '유라시아 시민대장정' 대장정 막 내려
75	파이낸셜뉴스	2022.09.26	노동균	"부산에서 유라시아로" 13박 15일 시민대장정 막 내려
76	LG헬로비전	2022.09.26	차선영	[2030세계박람회는 부산에서] 2022 유라시아 시민대장정, 15일간 대장정 마무리
77	부산제일경제	2022.09.26	원동화	파리서 올려퍼진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원 행사
78	아주경제	2022.09.26	박연진	[부산소식] 부산시, 부산찾은 주한외교사절 '2030엑스포' 유치 홍보전 나서 외
79	일요신문	2022.09.26	이혜림	[부산시]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 도전 외
80	KBS	2022.09.27	이상준	유라시아 시민 대장정, 13박 15일 일정 마무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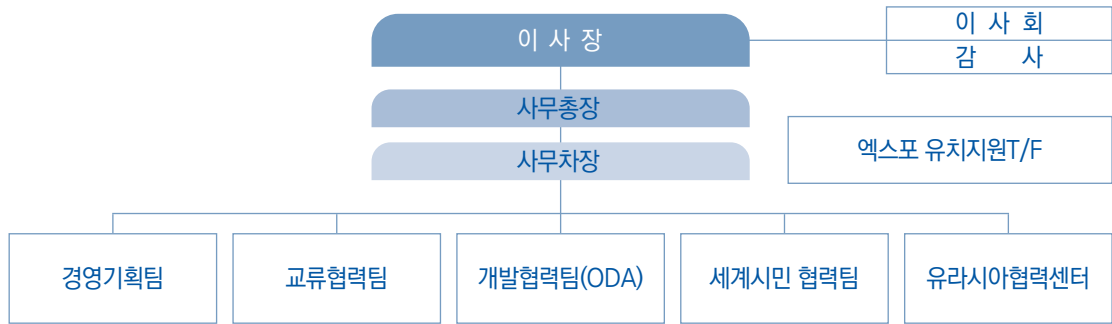
06

부산국제교류재단 소개

부산국제교류재단 소개

1. 기구

- 1) 이사회 : 15명(당연직 4, 선임직 9), 감사 2명(당연직 1, 선임직 1)
 2) 조직 : 4팀 1센터



2. 인력현황

정원 28명 / 현원 23명 (※ 공무원 정원 별도 : 정원 5명, 현원 5명)

(‘22. 09. 30기준, 단위:명)

구분	계	사무총장	사무차장	경영기획팀	교류협력팀	개발협력팀	세계시민협력팀	유라시아협력센터	2030 엑스포 유치지원 T/F
정원	28	1	1	6	5	5	5	5	-
현원	23	1	1	4	5	4	4	3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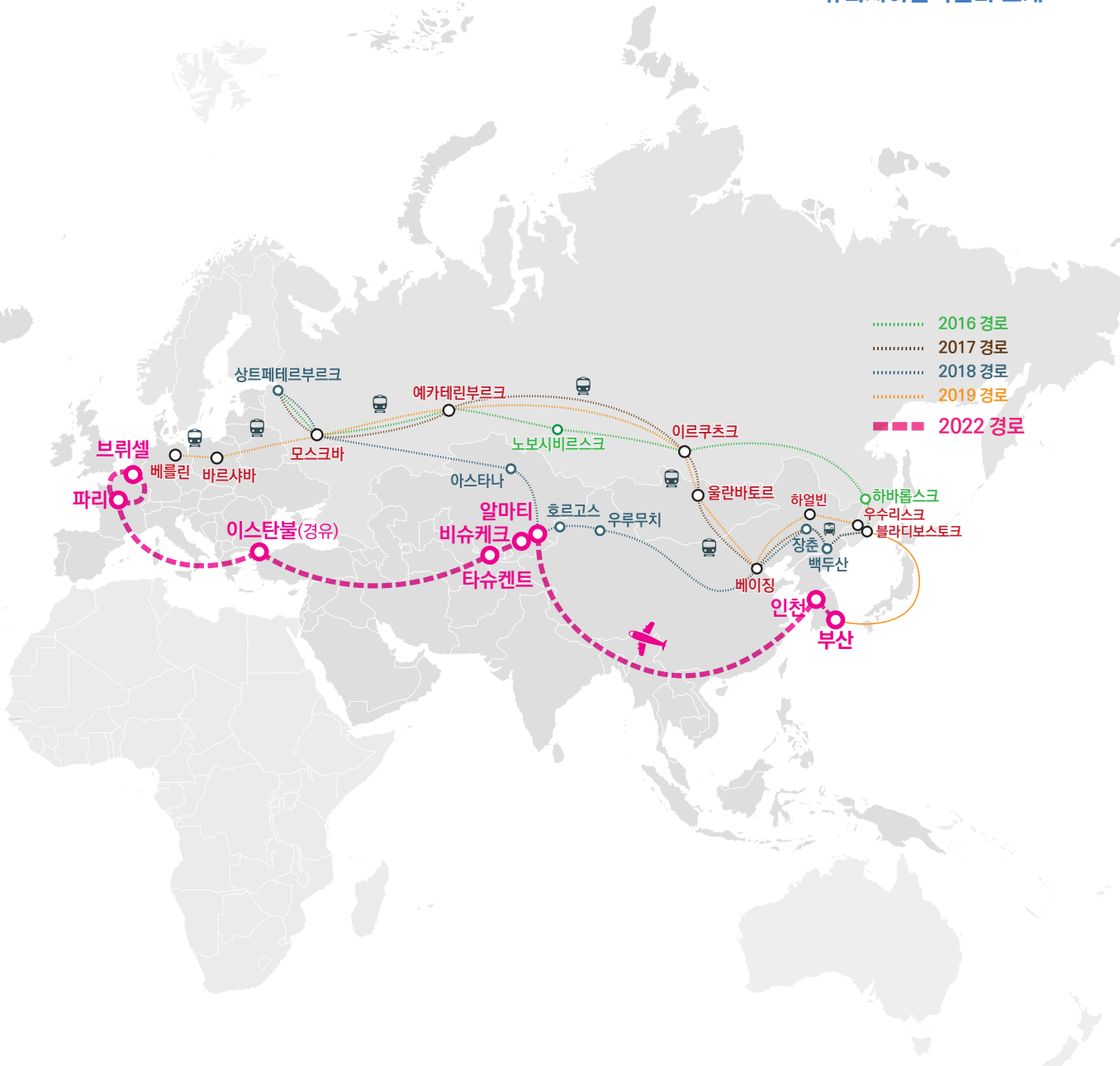
3. 주요업무내용

<p>1</p> <p>글로벌거버넌스 강화를 통한 시민 체감형 국제교류 강화</p> 	<p>2</p> <p>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유라시아 관문도시 기반조성</p> 	<p>3</p> <p>상생협력·혁신성장을 위한 개발협력 플랫폼 구축</p> 	<p>4</p> <p>공공외교 참여 확대를 통한 부산 이미지 브랜딩</p> 	<p>5</p> <p>세계인과 함께하는 글로벌도시 부산조성</p> 
--	--	--	---	---

07

유라시아협력센터 소개

유라시아협력센터 소개



유라시아협력센터 연혁

<p>1992.06 부산-블라디보스톡 자매결연 체결</p>	<p>2005.07 '부산시-블라디보스톡시 협력증진 협약서' 체결</p>	<p>2006.03~2015 한러협력센터 개설 및 운영</p>	<p>2016.01~현재 유라시아협력센터 확대개편 운영</p>
--	--	--	--

유라시아협력센터 소개

2022년 사업 추진실적

• 2022 유라시아 도시포럼

사업개요	주 제	사람과 평화를 위한 파트너십
	일 시	2022.6.23.(목) 14:00~18:00
	장 소	아스티호텔 부산역 그랜드볼룸(22층)
	대 상	중양아시아 주한대사 및 관계자, 기업 등
	진행언어	한-러 동시 통역
	참가인원	58명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중양아 업무협약, 개최식, 주제 발표 및 토론 등 〈세션 1〉 부산-중양아시아 도시 네트워크 구축방안 〈세션 2〉 부산-중양아시아 도시 간 실질적 교류방향 제언
	주최/주관	부산광역시, 부산국제교류재단



- 추진성과**
- 러시아 사태의 장기화 및 카자흐 총영사관 부산개관 등 현 상황에 부합
 - 부산-중양아 간 교류 확대방안에 대한 공관 및 전문가 의뢰수렴을 통한 경제·문화·교육 개발협력 등 다양한 분야의 양자 간 지속가능한 교류 및 협력발굴의 장 마련
 - 중양아 국가의 도시와의 교류 확대 및 파트너십 구축 가능성 제고
 - 유라시아시민대장정 사업협조를 통한 도시 간 네트워크 구축
 - 중양아 전문가 발굴 및 데이터베이스화를 통한 중양아 관련 자문단 구성 가능성 기대(좌장, 연사 및 토론자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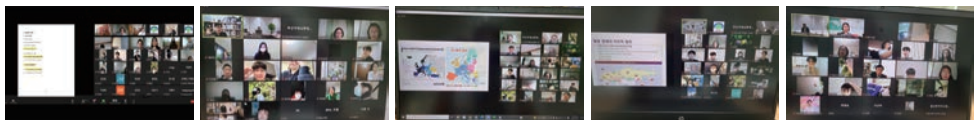
유라시아협력센터 소개

• 남북협력 및 유라시아 협력 네트워크 조성

- 사업개요**
- 대상** 남북교류단체, 신북방협력국(러시아, 몽골, CIS국가 등), 유관기관 등
- 주요 내용**
- 한반도 평화통일 인식제고 및 평화공감대 확산을 위한 교류사업
 - 부산-유라시아 교류사업 추진 (전시행사, 전문가 초청특강, 유라시아 영화제 등)
 - 유관기관 협력 네트워킹(국제행사 참석, MOU 체결 등)
 - 유라시아 아카데미 실시(5회)

추진성과 ■ 유라시아 관련 전문가 초청 아카데미 실시(온라인, 5회, 152명 참석)

회차	일자	강연자명	주제/강연주제	참가자수
1회차	4.19 (화)	이양구 전 대사 우크라이나대사관	유라시아와 한반도 관계 〈우크라이나 사태와 대유라시아 SDGs 전략〉	31명
2회차	4.26 (화)	강인욱 교수 경희대 사학과	유라시아 역사기행 〈미지의 세계로 떠나는 유라시아 여행〉	31명
3회차	5.3 (화)	고재남 원장 유라시아정책연구원	유라시아 지역과 국제정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 배경, 현황, 그리고 대응방향〉	39명
4회차	5.10 (화)	정민혁 박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유라시아 경제의 이해 〈유라시아 경제 러시아-중앙아시아를 중심으로〉	26명
5회차	5.17 (화)	이재혁 교수 부산외대 러시아학과	유라시아 지역의 현황과 문화 〈유라시아 지역의 현황과 슬라브 문화의 이해〉	25명



■ 2022 지역통일순회강좌 개최(5.11~25, 97명 참가/ 온라인)

- 시민대상 평화-통일정책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및 평화-통일교육 기반 마련



■ 2022 카자흐스탄 영화제 개최(6.24~26 개막식 568명 참가 / 영화의전당)

- 한-카자흐 수교 30주년 및 주부산카자흐스탄총영사관 개관기념 국내 최초 영화제 개최
- 부산국제영화제 기간 (2013~2021) 출품된 8개 작품 상영실시



유라시아협력센터 소개

• 유라시아 관문도시 네트워크 기반강화

사업개요	일시	연중
	대상	러시아·중앙아시아 등 유라시아 지역 관련 기관·단체·기업 등
	주요목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협업 및 정보 공유 등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라시아 협력 네트워크 발굴 및 구성(회원 가입 절차 등) • 관련현황 데이터화 및 유관기관 및 단체 등 MOU 체결 확대

주요성과 ■ 부산-중앙아시아 네트워킹 데이 개최

- 일시장소 : 2022.06.23.(목), 11:40~13:30 / 라발스 호텔(4층 Bolero)
- 주요내용 : 오찬개최, 환영사·건배사, 참가자 네트워킹 등
- 참석 : 52명



■ 유라시아 협력 네트워크 발족

- 일시장소 : 2022.12.13.(화), 15:30~19:30 / 라발스 호텔(4층 Bolero, 28층 Sky Cafe)
- 주요내용 : 공동 워크숍, 자문위원 위촉(3명), 공동협약서 서명(14개 개관), 만찬 등
- 참석 : 60여 명



2023년 유라시아협력센터 추진계획

• 유라시아 시민대장정

- 시 기 : 2023. 8~9월
- 장 소 : 유라시아 지역 자매·우호(예정) 도시
- 대 상 : 유라시아 지역 전문가, 청년, 시민 등
- 주요내용 : - 거점도시 부산데이 행사 개최
- 2030세계박람회 부산유치 홍보
- 유라시아 주요도시와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부산 브랜드 제고
- 예상성과 : - 유라시아 도시외교 강화
- '유라시아 관문도시 부산' 위상 제고
- 유라시아 거점도시 간 실질적 네트워크 구축 및 추진
- 민간 차원의 '2030 부산세계박람회 부산유치를 위한 홍보 활동을 통한 시정 기여

• 유라시아 지식문화교류 활성화 사업 신규

- 대 상 : 부산시민
- 주요내용 : - 유라시아 아카데미 개최
- 유라시아 협력센터 홈페이지 활성화 및 러시아어 웹페이지 접근성 강화
- 유라시아 교류사업 추진 (부산-상트페테르부르크 자매결연 15주년, 부산-알마티 우호도시 1주년 등)

• 남북 및 유라시아 관문도시 네트워크 기반 강화

- 일 정 : 연중
- 대 상 : 남북교류단체
유라시아 협력국(러시아, 몽골, CIS국가 등)
국내외 유관기관 등
- 주요내용 : - 한반도 평화통일 인식제고 및 평화공감대 확산을 위한 교류사업
- 유라시아협력네트워크 운영(참가기관 워크숍, 정보공유, MOU 체결, 네트워킹 행사 등)
- 한-중앙아 협력포럼, 한-러 지방포럼 공동사업 개발 관련 업무 등

• 유라시아 도시포럼

- 시 기 : 2023. 6월 중
- 대 상 : 유라시아 주요도시 관계자 및 전문가 등
- 주요내용 : - 유라시아 도시포럼 개최(개막식, 전문가강연 및 토론, 질의응답 등)
- 유라시아 협력 네트워크 구축

• 카자흐스탄 알마티 우호협력 1주년 기념행사 신규

- 일 정 : 연중
- 대 상 : 부산, 알마티 시민
- 장 소 : 부산, 알마티
- 주요내용 : - 우호협력 1주년 기념 양 도시 오케스트라 공연개최
- 문화예술 교류 행사 (봄맞이 나우르즈 행사, 영화제, 문화전시회)

2022 유라시아 시민대장정 활동보고서

- 2030 월드엑스포 부산에 유치해!-

발행및편집인	정종필
편 집	이치우 전미경 성혜진 손희승
편 집 제 작	빅그린
발 행 일	2022년 12월 29일
발 행 처	부산국제교류재단 유라시아 협력센터
주 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0, 13층
대 표 전 화	051) 711-6878
팩 스	051) 711-6826
홈 페이지	www.eurasiacenter.kr
이 메 일	busan.eurasia@gmail.com

이 책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와 무단 복제를 금지하며, 이 책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022 유 라 시 아 시민대장정 활동보고서

- 2030 월드엑스포 부산에 유치해! -